



현 재 진 행 형

한국극작워크숍 9기 동인 - 극작가가 극작가를 프로듀싱하는 시대로 최원종(극작가)	2
달려라 희곡아, 달려라 한국극작워크숍 9기 동인들이여 차근호(극작가)	6

인 터 뷰

드라마틱 댄스 뮤지컬 <오디션> 제작자 이봉규	8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작가 황은혜 김소영(서양화가)	12
젊은 예술가 조연호를 만나다	16

예 술 의 새 로 운 지 형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NArT	20
국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젊은 기운 윤종강(음악평론가, 공연기획자)	24
젊은 무용가들, 무대위의 꿈과 좌절의 현실속에서 김경애(댄스포럼 대표)	28

미 리 보 기

이희명	32
김은영	34

예 술 가 의 서 울 읽 기

꿈꾸는 도시 이희자(시인)	36
----------------	----

특 집 예 술 가 S e l f - P R

조정석 - 뮤지컬 배우	40
정하용 - 설치미술가	42
Eclat - 현대음악 앙상블	44

서 울 의 문 화 공 간

아시아의 브로드웨이 '대학로 II' 남기용(서울연극협회 사무국장, 모아엔터테인먼트 대표)	46
낙산 기슭에 깃든 삶 속으로 스며드는 예술 김준기(미술비평가, 경희대 겸임교수)	51

문 화 정 보

공연 / 전시 / 책 / 문화정보	56
--------------------	----

시 민 참 여 후 기

당신이 문화의 시작입니다 김경연(서울문화재단 움직이는 대학생 홍보대사 1기)	62
--	----

한국극작워크숍 9기 동인 극작가가 극작가를 프로듀싱하는 시대로



최원종 (극작가)

최원종의 <센티멘탈 운동장> 中

한국극작워크숍 9기 동인들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연극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희곡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극작워크숍 9기 동인들에게서 나오는 작품들이다. 신춘문에 등단 이후 이곳에서 실로 다양한 장르를 실험하고 연구하며 3년 과정을 거친 9기 동인들은, 어느 사이엔가 각종 희곡 공모에서 대거 당선되거나 최종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9기 동인은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신작희곡 낭독공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 낭독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들이 준비하는 낭독공연은 좀 특별하다. 이 특별함이 한국극작워크숍이 앞으로 신예 극작가들의 전초기지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다. 그 특별함이란 극작가들이 직접 하는 프로듀싱 시스템이다. 9기 동인들은 토론을 거치며 한 작품을 공연으로 올리는 모든 과정을 함께 프로듀싱한다. 이 과정에는 중견 연출가와 연극평론가, 그리고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선배 극작가들도 적극 참여한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9기 동인들의 야심 찬 포부

9기 동인들은 한국극작워크숍에 들어오기 전부터 연극계에서 각계전투로 작업해 왔다. 산고의 노력 끝에 나온 신작 희곡을 들고 그들은 각각 연출가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어떤 연출가가 자신의 작품과 가장 잘 맞는지, 어떤 배우가 자신의 작품 속 등장인물의 느낌과 잘 어울리는지, 어떤 극단이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극대화시킬지 알 수 없었다. 무작정 명성 있는 극단이나 연출가와 작업한다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그런 와중에 알게 되었다. 산고의 끝에 나온 그들의 신작 희곡이 일회성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9기 결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한국극작워크숍은 치열하면서도 거침없고 전투적인 작품합평회로 악명이 높다. 그 악명 높은 워크숍에서 살아남은 작품을 공연화 직전 단계까지 9기 동인들이 함께 프로듀싱한다. 그래서 작가, 연출, 배우 등을 가지고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 낸다. 그동안에는 연출가가 작가나 작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게 관행이었다면, 9기 동인들은 바로 그런 연출가들이 했던 일을 역으로 작가들이 맡는다. 작가가 직접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발굴하고 개발해 낸다. 그런 9기 동인들의 노력 속에 단 한 편의 연극을 만들더라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숨어 있다.

신작희곡낭독공연에서 선보인 6인 6색

이번에 사다리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신작희곡 낭독공연은 여러 모로 9기 동인들의 실험장이 될 예정이다. 우선 텍스트에 충실한 독회에서부터 연출의 의도가 적극 반영된 낭독공연까지 다양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낭독공연 준비과정 속에서 작가들은 그들의 모토대로 작품을 가장 극대화시켜 줄 연출가와 배우들을 만났다.

낭독공연에는 총 여섯 작품이 선보일 예정인데 작품마다 독특하고 각양각색이다. 우선 첫날 낭독공연을 하는 김숙중 작가의 <템프파일>은 미스터리물로, 살인을 하고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택시기사를 취조하는 과정 속에 세 명의 취조관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다루었다. 오주희 작가의 <숲>은 표현주의 극 색채가 강한 작품으로, 쓰레기 같은 자기만의 비밀을 안은 채 도시의 숲속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최명숙 작가의 <모텔 피아노>는 세속적인 공간인 모텔에서 피아노로 상징되는 지극한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이가 겪는 아픔과 고뇌를 그린 한 편의 수채화 같은 작품이다. 두 번째 날에 낭독공연 하는 최원종 작가의 <청춘은 아름다워!>는 33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옛나가 있는 사랑과 젊음, 직업, 그리고 16년 된 고교 동창생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헤어진 아내와 우연히 만나 호텔에 들어갔다가 아내의 현 남편에게 고소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김미정 작가의 <령>



〈호텔 피아노〉中

嶺)은 어느 신비스러운 령嶺 속에 갇힌 상처 입은 사람들의 하루 동안의 일을 그린다. 전쟁과 권력을 통해 상처받은 인간들의 정신적 외상이 령嶺 안에서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이시원 작가의 〈이 세상 마지막 계절〉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가족의 풍경을 담담하면서 희극적으로 그렸다. 가족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은 보는 이의 숨을 조인다.

극작 워크숍 공간, 라푸푸서원

9기 동인들이 격주 수요일마다 저녁 7시에 모이는 곳이 있다. CGV대학로 건물 근처 어느 4층짜리 빌딩의 꼭대기 층. 바로 ‘라푸푸서원’이다. 라푸푸서원은 ‘작가 에이전시 공간’이라는 모토를 걸고 2004년에 문

을 열었다. 이곳은 선옥현, 차근호, 고연옥, 강석호 같은 연극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배 극작가들이 운영을 맡았다. 그들은 후배들의 좋은 작품을 좋은 극단과 제작자, 연출가에게 에이전시해주며, 적극적인 드라마 트루그로도 참여한다. 작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라푸푸서원은 커다란 창문이 사면으로 나 있다. 작업실 밖으로 아담한 정원도 보인다. 이 정원의 이름은 ‘명작옥수수밭’인데 명작은 ‘옥수수처럼 풍성하게 열리는 밭’의 준말이라고 한다. 벽은 온통 황토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직접 작가들이 자신의 손으로 바른 거라, 손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 손자국들은 이곳을 드나드는 선후배 작가들의 것이다. 벽면 구석을 보면 “작품 쓰는 것이 힘들다” “올해는 꼭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등 작가들의 애뜻한 고민들이 쓰여 있다.

실험과 모색이라는 험난한 숲 속을 헤쳐 가며

전문 창작집단으로서 한국극작워크숍은 여전히 제작여건이 힘든 연극계에서 좋은 작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힘든 현실을 함께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 그들의 작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출가와 배우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작희곡 낭독공연(8월5일~6일 저녁 6시 사다리아트센터)은 그들이 프로듀싱해 그들이 연극계에 보내는 최초의 공개 프리포즈이다.



최원종

극작가

2002 서울신문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2007 서울연극제〈희곡아 솟아라〉창작공모전 당선

현재 라푸푸서원 대표, 극단 명작 옥수수밭 부대표, 한국극작워크숍 총무로 있다.

easybye@hanmail.net



달려라 희곡아, 달려라 한국극작워크숍 9기 동인들이여

차근호 (극작가)



오주희의 <숲> 中

달려라 대학로의 불, 11인의 젊은 극작가들

대학로 창작의 불, 그 뜨거움과 열정 때문에 선배 극작가들조차 위기감을 느끼는 신예 극작가들이 있다. 다름 아닌 한국극작워크숍 9기 동인들이다. 9기 동인들은 등단 일이 년만에 각종 희곡 공모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9기 동인의 저력은 작가를 단련시키고 창작욕을 일깨우는 한국극작워크숍만의 독특한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1965년 연극평론가 여석기 선생의 주도로 시작된 한국극작워크숍은 작가들의 수련장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했다. 1기 오태석(극작가/연출가), 윤대성(극작가) 등이, 2기 이강백(극작가), 오태영(극작가) 등을 시작으로, 7기에서는 조광화(극작가/연출가), 오은희(뮤지컬 작가), 김윤미(극작가), 김대현(극작가) 등을, 내가 동인으로 활동하는 8기에서는 선옥현(극작가), 김수미(극작가) 등의 작가군을 배출했다. 현재도 많은 동인 작가들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창작하고 있다. 한국극작워크숍에서 고된 작가수업을 받았던 선배 동인들이 연극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듯이 9기 동인들도 극작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9기 동인의 신작희곡낭독공연이 소중한 이유

가끔 주위의 지인들은 왜 굳이 희곡 낭독공연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진다. 낭독공연은 본공연에 앞서 희곡의 작품성과 가능성을 검증받는 무대이다. 따라서 낭독공연의 파급력은 어떤 면에서는 본공연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낭독공연의 의미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만 접어들 일이다. 작가에게 낭독공연은 자신의 희곡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오직 희곡만으로 관객을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희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감히 도전하기 힘들다. 그런 면에 9기 동인들은 용감하다. 9기 동인들이 과감하게 낭독공연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작품에 강한 자신감

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낭독공연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9기 동인들이 직접 프로듀싱한다는 점이다. 극작가가 프로듀싱한다는 말이 다소 생소한 느낌이지만 바로 그 점이 9기 동인들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이유다.

우리나라 희곡의 르네상스를 고대하며

“극작가로서의 생애가 결코 화려하거나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한국의 연극 환경 속에서, 극작의 길을 걷고 있거나 걸으려는 사람들이 지닌 뜻과 인내는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연극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의지의 상징처럼 보인다. 찬바람이 부는 허공에서 비록 찢기긴 했지만 여전히 즐기차게 휘날리는 그들의 깃발을 보면 오히려 고고함마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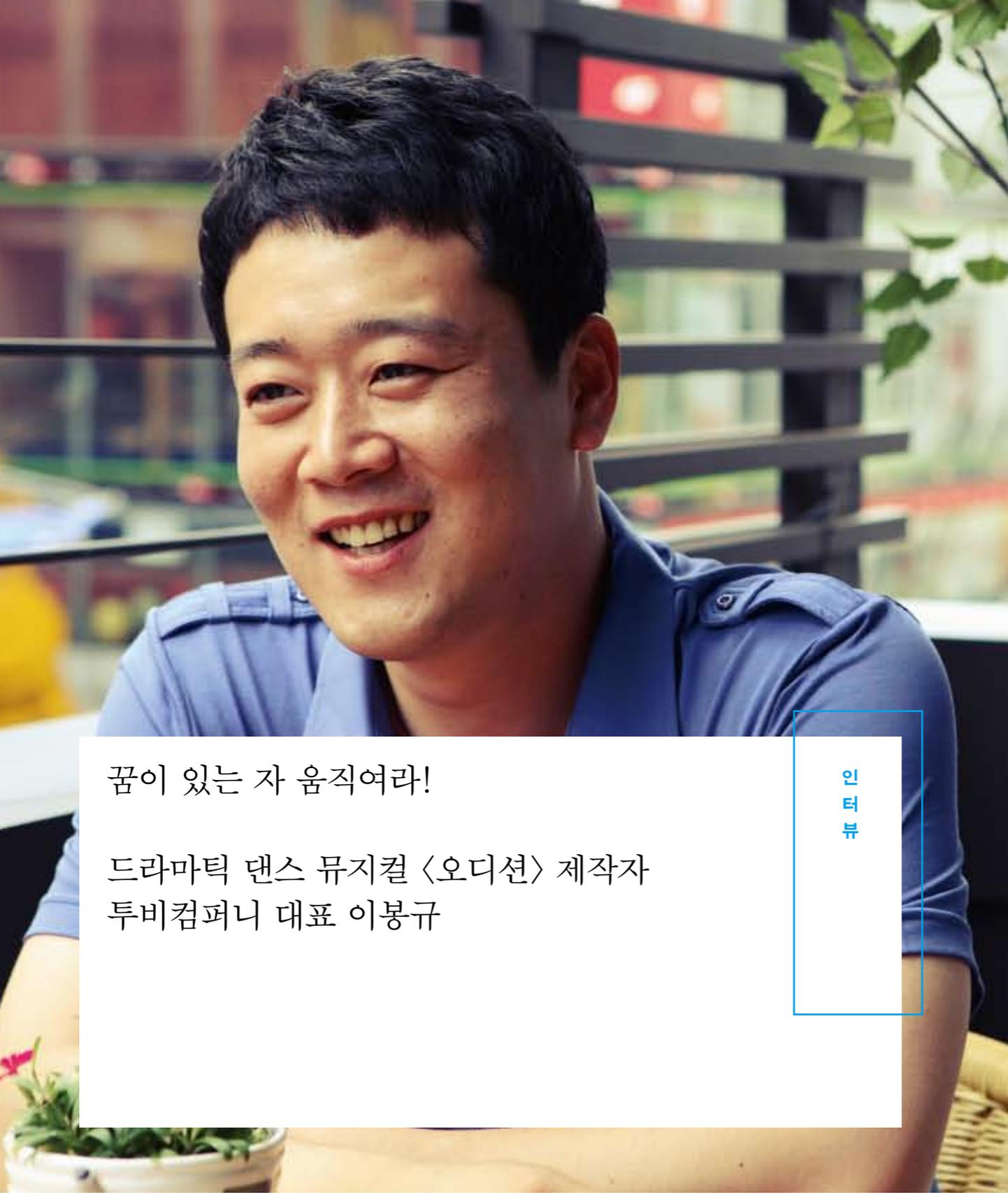
한국극작워크숍에서 지도강사를 맡으셨던 한상철(연극평론가) 선생님께서 극작워크숍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쓰신 글에 나오는 말이다. 이 글을 볼 때마다 예나 지금이나 극작가의 길은 험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도 희곡을 쓰는 작가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1965년 드라마센터 극작워크숍으로 시작된 이래 한국극작워크숍이 걸어온 길은 40년이 넘었다. 극작워크숍은 작가들의 수련장이며 사랑방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결코 변치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극작워크숍의 정신이다. ‘작품과 적당히 타협해 버리는 기풍을 일체 배격할 것!’ 서로를 좋다 좋다 하면서 슬그머니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말 것! 이 정신은 한국극작워크숍의 정신이고, 우리 동인들의 정신이다. 이 정신이야말로 극작가의 고고함이다. 우리가 이 정신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한국 희곡은 르네상스를 맞이한다고 나는 진실로 믿는다.

차근호

극작가

삼성희곡상 당선, 동아연극상 작품상 수상, 현재 극단 명작 옥수수밭 대표, 라푸푸서원 운영위원으로 있다.

chaky21@hanmail.net



꿈이 있는 자 움직여라!

드라마틱 댄스 뮤지컬 <오디션> 제작자
투비컴퍼니 대표 이봉규

인터뷰

작렬. 사전에서는 “박수 소리 또는 운동 경기에서의 공격플레이가 포탄이 터지듯 극렬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 내리는 단어. 바야흐로 태양의 열기가 작렬하는 지금, 대학로에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작렬하고 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이봉규, 그가 서 있다. 공연기획사 ‘투비컴퍼니’의 대표인 그는 현재, 드라마틱 댄스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연 <오디션>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느라 여념이 없다. 공연장 바로 옆, 대학로 거리와 다르게 한적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공연계의 젊은 기획 제작자인 이봉규 대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궁금했다.

過去

공연기획사의 대표로는 젊은 편이다. 공연 쪽의 공부나 일을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진 않았을까. 그러나 그가 입을 열자 그러한 단순한 기대는 이내 무너져버렸다.

“어렸을 때, 많이 놀았죠(웃음). 고등학교 졸업 후, 귀금속 회사에 1년 6개월간 몸담고 있으면서 그 일이 너무 정적(靜的)이란 생각이 들어 그만 뒀어요. 원래 저는 동적(動的)인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군 입대 전 이벤트 회사를 1년 동안 다녔어요. 제대 후엔 자연스레 이벤트 회사를 창업했구요.”

처음, 친구와 함께 풍선이벤트 사업을 시작한 그는 꽤 짝퉁한 매출을 올렸으나 그것도 잠시, IMF를 만나 사업을 접었다.

“친구와 동해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막연하게 대학에 가고 싶단 생각이 들었고, 이벤트처럼 동적인 일을 배울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일까 찾아 모 지방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지 않는가. 그는 그곳에서 은사인 윤영선 선생을 만났고, 윤영선 선생은 공연기획 일에 관심이 많던 그를 ‘악어컴퍼니’의 조행덕 대표와 만나도록 주선해준다.

“‘악어컴퍼니’ 초창기 멤버였어요. 7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공연기획 일을 시작했죠. 현재 악어컴퍼니는 100평이나 되는 사무실이 있지만, 초창기엔 월세 30만 원짜리 성북동 지하 사무실에서 시작했죠.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학업에 대한 아쉬움이 커져만 갔다고 한다. 고심 끝에 조행덕 대표를 찾아갔고, 조 대표는 그의 대학 편입을 흔쾌히 승락했다.

“두 군데 연극영화과에 합격했어요. 우선은 회사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해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에서부터 두 학교까지 운전해줬죠. 국민대에 들어가게 된 건 회사에서 5분 거리였기 때문이에요(웃음).”

그렇다면 학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악어컴퍼니’와 왜 결별했을까?

“조대표님과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지더군요. 대표님은 영화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데, 저는 공연 일을 더 하고 싶었고, 시간이 갈수록 편해진 이 자리가 익숙해질까 두려워 독립을 결심했죠.”

익숙함을 두려워하고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그의 모습이 영웅적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그는 ‘투비컴퍼니’를 만들었다.

現在

그를 만나자마자 두 장의 명함을 받았다. 하나는 ‘투비컴퍼니’ 대표, 다른 하나는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사무국장. 그의 정력적인 에너지는 이 두 장의 명함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뮤지컬, 연극, 전시 기획자이자 홍보마케팅 팀장으로 활동하는 그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직원들 월급은 쥐야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라이어> 같은 지속적인 수익이 날 만한 레퍼토리가 없어, 열심히 받품을 팔지 않으면 안돼요. 또 적은 예산으로 회사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불가피하게 여러 공연 기획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제 다양한 경력은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는 프로듀서는 반은 예술가, 반은 경영인이라며 현실은 냉혹하다고 덧붙인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 공연되고 있는 작품 <오디션>이 비교적 순풍을 타고 있어 다행이라 한다. 아직은 첫 제작물이라 드라마나 텍스트 부분에 대해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관객들에게 ‘최소한의 감동’, 즉 기분 좋게 놀다 갈 수 있는 작품이라며 <오디션>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회사이야기를 하다 직원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간 듯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다.

“큰 기획사는 입사 때부터 부서가 배치되어 전문성을 키우지만, 전체적인 큰 눈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어떤 부서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든든합니다.”

공연시장이 커지면서 고급인력이 많아진 지금, 포스터 한 장 붙이기 힘들어하는 그들이 그는 안타깝다. 초창기 2년 동안 그는 포스터만 붙여왔고,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공연기획을 하면서 공연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이렇다.

“공연계에 문제는 없어요. 차라리 관객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어째서일까요?”

“요즘 고교생들은 ‘TGI프라이데이’에서 배를 채우기 위한 돈은 서슴없



드라마틱 댄스 뮤지컬 <오디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2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댄스게임 ‘클럽 오디션’이 뮤지컬로 새롭게 태어났다. 게임을 뮤지컬로 만드는 첫 시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게임의 상상력에 드라마를 더해 관객들에게 신선한 공연을 선사한다. 또한 드라마틱 댄스 뮤지컬 <오디션>은 다양한 춤의 향연을 보여준다.
2007. 6. 26~8. 19
주중 20:00, 토 16:00, 19:30
일/공휴일 15:00, 18:30
월 공연 없음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1관
(구 신시뮤지컬극장)

이 내지만 가슴을 채워주는 공연에는 너무 인색해요. TV를 켜도 온통 먹을거리에, 맛집 프로그램뿐이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는 건지…”

살면서 미간을 조이는 이봉규 대표.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해 걱정하는 눈빛이다. 그러나 이내 그 눈빛은 열정적으로 바뀐다.

“좋은 공연을 만들어야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공연, 적어도 ‘최소한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을 제작하는 것이 저의 일이자 꿈이니까요.”

역시 동적인 것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사람임이 틀림없다.

未來

댄스베틀게임인 ‘클럽 오디션’을 소재로 한 드라마틱 댄스 뮤지컬 <오디션>. 게임회사인 (주)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서 재공연을 의뢰했다. 일단 ‘맞춤제작’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성공도 그는 지인들에게 돌린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서 공연제작을 의뢰할 기획사를 찾고 있을 때, 여러 분들이 저를 추천해주셔서 <오디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죠.”

성실한 사람, 이봉규. 성실하다는 주변의 평에 대해 ‘악어컴퍼니’ 조행덕 대표 밑에서 일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런 평을 얻을 수 있었다고 머쓱해한다. 성실함으로 푹푹 뭉친 그는 누구에게도 “이봉규라면,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추천대상 1위가 아닐까 싶다. 관객들에게 “투비컴퍼니의 공연이라면, 믿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그. 공연인생의 오디션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그에게 긍정적으로 보인다.

공연기획은 두뇌가 아니라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한 회사의 리더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에게서 공연시장의 밝은 미래가 엿보인다. 지금까지 겪은 실패의 경험들과 앞으로의 제작 계획을 특유의 청량한 웃음에 버무려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일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는 적극적이며 신중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한다.

‘꿈이 있는 자, 움직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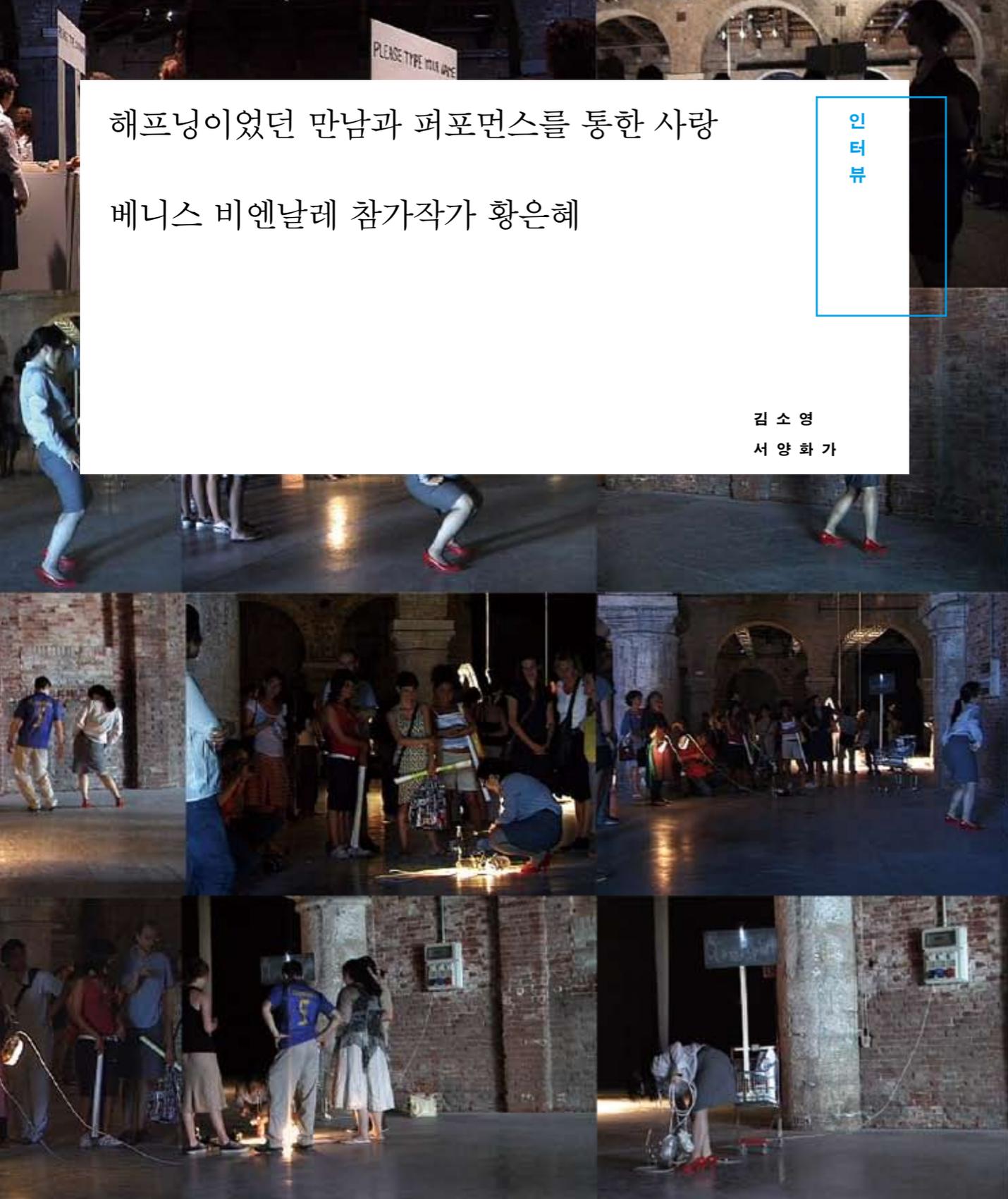
편견편견

해프닝이었던 만남과 퍼포먼스를 통한 사랑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작가 황은혜

인터뷰

김 소 영
서 양 화 가



7월 15일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관인 아르젠날레에서 두 명의 이탈리아 관람객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의 해프닝이었던 말 걸기를 통해 나는 퍼포먼스의 대가인 마리나 아브라모빅(Marina Abramovic)이 이끄는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한국관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아르젠날레와 자르디니 미술관 어디에도 한국인 신인 작가가 없었기에 마땅한 인터뷰 상대를 발굴할 수 없었던 나는 여기서도 버릇처럼 작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주시했다. 두 번째 관문의 작가 이름표에 적힌 '은혜 황'으로 읽히는 그 이름. 한국 여성임이 분명했다. 한국 작가를 발견한 것도 기뻐지만, 마리나 아브라모빅이라 하면 명실공히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 아티스트일 터인데, 그녀에게 선발되어 그녀와 함께하는 작가 중에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운 기쁨이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댄스 부문의 주제는 '육체와 성애(Body & Eros)', 15개국 36명의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독립적 퍼포먼스 그룹인 IPG(Independent Performance Group)의 창립자이자 큐레이터인 아브라모빅은 선정된 15명의 작가들에게 이 주제를 주고선 '에로틱한 몸(The Erotic Body)'이라는 제목 아래 연출하도록 했다. 작가들은 천장이 높고 드넓게 트인 조선소 건물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각자 그리고 함께, 실로 에로틱한 주제를 다양한 해석으로 12개 극을 연출했다. 마침 아브라모빅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제자를 아끼는 좋은 선생님의 태도로 나를 황은혜 씨에게 데리고 가서는 직접 설명을 들려주었다. 지금 황은혜 씨는 계란이 삶아지는 동안에 사람의 이름을 노래 부르며, 엉덩이로는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황은혜 씨는 관객으로 하여금 입구에서 타자기로 이름을 입력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등록된 이름들 중 하나를 골라 공연장을 돌아다니며 이름의 주인을 찾았다. 사람을 찾으려면 계란에 그 이름을 쓰고 계란 찌는 기계에 넣었다. 계란이 완숙으로 익는 동안은 그녀가 공연을 펼치는 시간이었다.

황은혜 씨의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 작품 'You are in me.'

나는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음날로 미루고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 공동 퍼포먼스를 감상한 뒤,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우선 나는 전문기자가 아니라 좀 더 친밀한 인터뷰를 기획하는 미술 전공자이며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음을 알리자, 직접적이며 즉흥적인 소통 방식인 퍼포먼스를 행하는 작가답게 그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터뷰 기회를 ‘재미있네요’라는 말로 받아들였다.

황은혜 씨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두 가지를 기조로 들려주었다. 첫째는 자신이 이름에 의미를 두고 작업한다는 것, 둘째는 한국의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가 퍼포먼스를 좋아해 독일로 유학을 갔다는 것이었다.

“이름이란 것은 곧 그 사람의 실체이죠. 존재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이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름으로 시작하고... 정말이지 우리는 이름과 함께하고 함께 가죠.”

“후후. 그런가요? 하긴 ‘은혜 황’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서야 제가 아브라모빅이 이끄는 그룹에서 한국인 작가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가가 자신의 세계를 들려주는 중에 나는 IPG 전체 퍼포먼스를 어떻게 감상했는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에 대한 소개는 그녀의 아름답고 명확한 작가 노트의 일부를 옮기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지금 여기는 황은혜가 자신을 세상에 이르게 하는 곳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며 어떻게 나에게 새로 오는 시간들을 맞이하는가를 표현합니다. 나를 여기로 데려오는 기류와 함께 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세계에, 나는 당신을 진정한 마음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세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의 모든 불가사의한 것, 미스터리들, 그리고 경이로 우리의 가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각은 개개의 찬란한 독자성으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겨안는 일종의 현존과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가능한 길로 서로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를 강렬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계속해서 매료시키는 이 살아 움직이는 화학작용에 의한 인간관계를 당신과 체험하기를 고대합니다. 퍼포먼스는 나에게, 참가자들과 서로 간에 특별하게 작용하는 대화를 열도록 해줍니다.”

작가와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나는 황은혜 씨에게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노라고 인사했는데, 이는 실로 사실이었다. 그녀도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한 즉석 인터뷰가 우리 둘 사이에서 무언가를 생성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졌을 거라 여겼다.

한국에 돌아와 내가 궁금해하던, 둘째 날과 셋째 날 황은혜 씨의 작품 ‘You are in me’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메일을 통해 건네 들었다. 그녀는 작품이 첫째 날로부터 자라나 둘째 날과 셋째 날을 거쳐 자라났다고



아르젠날레 공연장 앞에서 인터뷰하는 황은혜 씨

황은혜

1978년 서울 출생.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예술학교에서, 마리나 아브라모빅(Marina Abramovic)과 울리히 엘러(Ulich Eller)를 지도교수로 퍼포먼스 학위(Diploma) 취득. 카셀 프리데리치아눔 미술관, 밀라노 PAC,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 아비뇽 페스티벌 등에서 전시회를 가진. 현재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 중.

IPG 웹사이트 : www.i-p-g.org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This Is Just for You)’ 2005년 베를린 하우아인스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엉덩이로 이름을 썼고, 어떤 때는 한꺼번에 계란을 여섯 개나 썰어야 했으며, 관객들은 자기들이 받은 계란을 그녀와 나누어 먹기를 바라기도 했고, 그들은 그렇게 함께 이름을 노래하는 멜로디와 이름을 쓰는 모션을 만들어 갔노라고 했다. 나는 황은혜 씨의 작품이 그렇게 만개되어 간 소식에 기뻐했다.



2002년 티셔츠의 승려들이 아브라모빅의 클래스를 방문해 함께한 사진

“실례합니다만, 당신의 이름을 여쭙어도 될까요? 당신의 이름은 나의 몸 안으로 들어와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황은혜 씨의 2005년도 작품,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This Is Just for You)’에 적힌 작가 노트이다. 나는 이 시적이고 아름다우며 명확한 문장에서, 퍼포먼스를 작업 양식으로 택하게 한 황은혜 씨의 본능에 대한 내 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름’이라는 매개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사람 간의 소통에 행복해하고 존재들에 감사하는 삶, 그녀의 사랑인 것이다.

좋은 작가의 자질은 풍부한 사랑으로, 사랑에 적극적인 기질이다. 황은혜 씨는 언젠가 한국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공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랐다. 이미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수차례의 공연 경력을 지닌 그녀가 IPG와 함께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You are in me’를 한국의 좋은 장소에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녀에게 이름을 주고, 그녀 안으로 들어간 이름이 선율로 생성되어 나오는 것을 듣는 기쁨. 나는 거기서 생성되는 재발견의 재미와 의미,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감동을, 우리의 이름을 잃은 여성들, 예컨대 누구의 부인과 누구네 엄마로, 그리고 통칭 아줌마로 불리는 우리의 어머니들과 펼쳐간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혼자 생각해본다. 작가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아브라모빅과 IPG에게는 큐레이터와 작가, 그리고 동료들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관계의 시너지 효과가 형성되어 있다. 각자가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이들의 공연이 머지않아 서울에서도 열린다면, 우리는 동시대의 화려한 무대들의 각축 속에서 ‘진보한 고전’의 진정한 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베니스 아르젠날레에서 겪은 우연한 해프닝이 인터뷰라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불렀고, 이제 그 퍼포먼스는 장차 어떤 플럭서스(흐름)로 나아가게 될지 기대해보자.

김소영

서울대 서양화 전공. 밀라노 브레라 국립미술대학 수료. 현재 이태리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 중. kimsoyoung1@hotmail.com

빛소리를 지저귀며 새들이 죽어가던 오후

젊은 예술가 조연호를 만나다

인터뷰



*시인은 희망을 가질 권리가 없다

빛소리를 밟으며, 그는 약속장소로 잡은 대학로의 한 카페로 나왔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에 밤샘의 흔적이 역력한 모습. 아스팔트를 연주하는 빗방울만큼이나 그는 쉽 없는 도약, 비상, 추락을 반복하고 오늘을 맞이한 듯싶다. 따뜻한 커피를 두 잔 주문하고 한 모금 삼키는 동안, 문득 시인이 하는 음악은 어떨지 궁금해졌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요. 뉴에이지나 전통가락, 60~70년대 사이키델릭 음악, 그리고 인도 전통음악을 연주하죠. 인도 전통음악을 할 땐 뭘 선택의 여지가 없죠. 시타르를 연주해요.”

시가 언어로 하는 연주라면, 음악은 음으로 하는 연주가 아닐까. 그에게 두 연주의 서로 다른, 혹은 공통된 요소에 대해 들어봤다.

“단어는 음악으로 치면 하나의 음표예요.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글을 이루듯, 음표도 마찬가지로. 단어든 음표든, 그 자체만으론 가치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것이 놓인 자리가 중요해요. 여기 A, B, C 라는 세 개의 음표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지금 지칭하는 음표가 만일 B라면, 그것은 나머지 음표들, 즉 A와 C가 없인 결코 상대적 가치를 얻지 못해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은 단어와 조사의 결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결합들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 혹은 ‘차이’로 인해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존재가치가 성립되는 거죠.”

시와 음악, 서로 닮은 두 연주에 대한 다소 구조주의적인 설명이었다. 그는 단어와 음표가 공통적으로 지닌 ‘등가성’과 ‘상대성’을 강조하며 다음처럼 덧붙였다.

“고전적 의미에서 음악은 멜로디를 글은 서사를 지향하지만, 현대에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모든 음들이 저마다 ‘등가성’을 띠 채 존재하죠.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12음계, 무조음악, 현대음악들. 고전적 의미에선 ‘조’가 있어요. ‘조’라는 것은 하나의 음을 기준으로 그것이 위로 상승할 것이냐 아래로 하강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키워드죠. 현대음악에 이르러 그런 키워드는 없어졌어요.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어공부하면서 배웠던 핵심어나 주제어 같은 것들, 이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그런 개념에 의지한다면 해석이 불가능한 게 현대시예요. 모든 단어들, ‘등가성’과 ‘상대성’을 갖고서 움직여가는 거죠. 서사가 점점 파괴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땐, 그렇게 파괴만 일삼으면 실제 남는 건 폐허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조음악이나 현대음악, 현대시들을 떠올려 봐요. 특히 시의 경우엔 그렇게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정조들이 있어요. ‘뉘앙스’와 ‘인상’ 같은... 서사나 이야기, 플롯이나 이야기 구조보다 그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자연스럽게 현대문학 쪽으로 화제가 옮겨졌다. 그는 문단 전반에 걸친 커다란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특정한 문예사조에 의해 글쓰기의 기법과 개념, 쓰는 이의 태도 등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학은 어느 하나의 흐름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리만큼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작가 개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저마다 새로운 ‘변화’의 틀을 형성해 따로 또 같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는 이를 ‘르네상스’라는 말로 표현했다.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갈 것

이나,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화이고 발전이에요. 스펙트럼 자체가 이렇게 다양해져야지 어느 하나로 묶이면 곤란하죠.”

인터뷰 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촉기가 서렸다. 빛소리는 가뭇었다. 입가와 미간을 부드럽게 떨며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생각해보면 불과 4, 5년 밖에 안 된 일이에요. 제가 등단한 1994년도엔 정치적인 시나 민중시들이 득세를 이룬 막바지였거든요. ‘新서정’이라는 용어가 출몰했죠. 전혀 새롭지 않은 리얼리즘의 아류일 뿐이었는데, 내심 지루했죠. 당시만 해도 기존의 판도가 뒤집힐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으니까. 지금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해요. 동시대를 살면서, 함께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게 되다니... 작가 개개인마다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공통점을 묶을 수도 없이.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현상,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전 나름 행운이라 생각해요.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20~30년 후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온 이 새로운 움직임이 아마 문단의, 문단사의 르네상스라고 기록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힘 있는 발언에 동의의 표하며, 문학의 판도를 바꾼 또 다른 근거로 개인화된 사회와 비주류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전 시대와는 분명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한데 문체는 아직까지도 주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는 조심스레 ‘미래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 문단에 ‘미래파’라는 새로운 조류가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2,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일이다. 당시 거의 모든 문예월간지와 문예계간지에선 일제히 ‘미래파’를 공격하는 비판 기사를 실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역

설적으로 지금의 기득권층이 너무도 공고히 자리하는 현실을 증명하는 것 일뿐더러 결코 발전적인 논쟁 태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런 말 잘못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지.”

농담조로 말하며 멋쩍게 웃던 그는 마주보던 이의 곤란해하는 표정에 눈길이 닿자 이내 괜찮다는 반응을 보인다. 잠시 주저하며 그의 이름 앞에도 역시 ‘미래파’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느냐고 물음 아닌 물음을 던져왔다.

“개인적으로 제가 미래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더러 미래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이루는 사람들 속에 제가 속해 있다는 생각, 이보다 더한 상찬이 있을까요.”

무지근히 가라앉은 침묵이 다시 빗소리를 몰고 왔다. 커피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루한 듯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 재미있는 것 좀 물어보세요. 어려운 질문으로…”

재미있고 어려운 질문이라.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소년, 아니 아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표정한 말들 사이사이마다 배어나는 장난기, 열정, 묘한 어리광, 수줍은 듯 예민한 웃음소리. 그러나 또 한편 그는 냉철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직관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다채롭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그를 진심으로 웃게 할 질문이란 어떤 것일까. 엇비슷한 사념들이 한꺼번에 노크를 해대는 가운데, 실수로 열려진 문, 질문. 단혀라, 참깨.

“소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체 글쓰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순수문학이라면 소통은 생각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故 김춘수 선생이 죽기 몇새 전에 한 이야기예요. 시는 기본적으로 불화다. 소통을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저는 대단히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예술 장르가, 아니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문외적인 형태로 나아가 하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화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소통 따윈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다고 제가 전위적으로 나가 틀을 깨부수고 훌륭한 것을 만들어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이 하고 있는, 혹은 꿈꾸는 문학, 예술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묻어나는 말이었다. 용기를 내서 이번엔 그의 새 시집 《저녁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소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화자로 나오죠. 그 아이들은 삶에 대한 비극성을 이미 알아버려 더 이상 자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영원히 어른이 안 될 순 없잖아요. 슬프다면 좀 슬픈 아이들이죠. 시 한 편 한 편마다 그런 아이들의 발화가 섞여 있어요. 거개가 다중화자들인데다 서사도 없고, 인과성도 무시되고, 시간대도 모호해 읽는 사람은 굉장히 헛갈리



시집 《저녁의 기원》 소개

조연호의 시에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시집 전반으로 봤을 땐 아무런 스토리도 없다. 모종의 스토리가 쓰일지도 모를 불가해한 여백들만 넘실댄다. 각기 시편들이 읊어대는 스토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예술적 형식으로도 재연되거나 상연될 수 없다. 각기 시들은 그들만의 운용체계와 발화체계를 따로 갖는다. 비록 시는 시인에 의해 쓰였지만, 시가 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재구성하는 건 요원한 일이다. 이것은 시와 시인 사이의 유구한 (반)도덕률이다. 그럼에도 그 스스로 하나의 체계와 음계를 장악해 시의 정원을 꾸미려 드는 것은 모든 시인의 정언명법이다. 따라서 그 정원은 파탄을 전제로 한다. 조연호의 새 시집은 그 파탄의 시작을 보여주기보다 처참한 결론에서부터 시작한다. “구름의 약한 전류에 감전되듯 비좁게” 사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는 그의 시어들은 상반된 양극의 에너지가 어느 한 지점에 겹쳐 파열하는 양상을 띤다. 그리하여 자족적으로 폐쇄된 밀고적 공간으로 연결된다. 그건 일정한 언어적 신내림의 자동기술법이지만, 조연호는 그 파열된 언어들에 그 나름의 음계를 세워 단어 자체가 가진 방만한 활기를 제어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덧씌운다. 그리하여 시집 전체가 현실을 저만치 떠밀고 부양하는 기묘한 중음(中陰)의 세계로 펼쳐진다.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기타를 통기거나 사랑을 나누는 일 따위는 삶이 아니라 죽은 쪽으로 기운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상하게 가볍다. “흰 줄을 그으며 멀리 사라지는/비행은 이야기”들이 단어들의 불규칙한 이동과 메마른 정서로 수혈되는 “사물의 혈액”으로 흘러 살의 또 다른 지대를 꿈꾸기 때문이다. 그건 지상의 어느 악보에도 채록되지 못할 우주의 음악이자 인간의 이성 체계로는 체득이 불가능한 단어들의 물리학이다. 쓰면 쓸수록 지워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멀어지는 어떤 이름들. 이 시인의 불가항력한 자기장 속에서 “행복한 난청”을 겪는다면 이 시집이 숨긴 스토리를 완성한 마지막 독자는 바로 당신일 것이다.

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젊은 시인들에게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영미 문학에선 18, 19세기 접어들면서 이미 다 실험이 돼버린 것들이니까요. 그러니 뭐 사실 놀라워할 것도 없죠. 다만 그런 작법, 독법들에 대해 사람들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새로워 보이는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지금, 새로운 형태의 작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뭐 그런 것 같아요?”

돌연 그가 질문을 던졌다. 《문화+서울》7월호의 어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콜라주이다.

“보통 사람한테 ‘이거 뭐 그런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한결같죠. ‘버스 같다’ ‘괴물 같다’ ‘잘 모르겠다’ 등. 그건 이 그림을 의미로 읽어서예요. 의미가 아니라 느낌이지요. 그렇잖아요. 요즘 현대음악, 현대미술, 특히 추상미술을 어떻게 봐야겠어요.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아마 만든 사람의 의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느낌으로 가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로요. 학술서나 인문학 서적처럼 문장 하나하나의 명확성을 따져가며 읽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를 즐기는 거죠. ‘야, 이거 뉘앙스가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되면 그게 바로 좋은 시예요.”

테이블 주변의 분위기가 자못 숙연해졌다. 젊은 예술가로서 그는 참으로 순수했다. 순수해서 깊고, 깊어 아름다웠다. 수첩 안을 까맣게 떤 질문들이 더럽게 느껴졌다. 시가 어려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더러워진 눈으로 투명한 세계를 보려니, 잘 안 되었던 거다. 잔디 깎는 기계가 의식 속을 시원하게 굴러간다. 느낌만 남긴 채. 끝으로 그는 예술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밀함’이라고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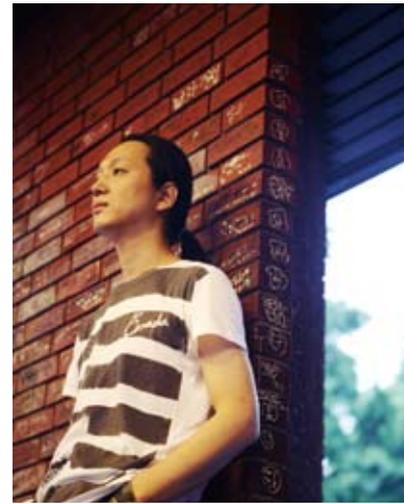
“거의 모든 예술을 대할 때, 전 그것이 내면적이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시들, 음악도 마찬가지로요. 모두 굉장히 내밀한 데서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내밀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보편타당할 뿐이지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로 하오의 달빛이 스민다. 맑은 웃음과 함께 인사를 건네고 그는 다시 빗소리를 밟으며 대학로 저 끝으로 사라져간다. 남은 건, 식어버린 커피의 마른 향과 투명하고 말랑한 어떤 느낌. 그가 사라진 곳으로 바람이 분다. 외다리로 선 거대한 새처럼, 가로수는 위태로운 날개 짓을 시도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를 잊고 싶지 않아. 나 혼자서 바람에게 그렇게 말해본다. 그날은 왼손잡이용 글러브처럼 오른 쪽으로 날아오는 것들과 마주하던 일요일. 우월의 표시로, 연대의 표시로 너는 모자를 벗고 세계관이 없는 제비를 하나 뽑았다. 겨울의 지하에서 여름의 지상으로. 수레처럼.

〈변신 이야기〉中

미래파



조연호 프로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199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다. 제5회 수주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죽음에 이르는 계절》 《저녁의 기원》, 산문집 《행복한 난청》을 출간했다. 현재 음악 활동과 시 창작 강의를 하며, 소설가 이기호가 진행하는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에서 PD로 있다.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NArT 젊음이여, 열정이여 서울에서 꿈을 펼쳐라

이 현 아 (서울 문화 재 단 예술 지원 팀)



경력이 짧은 예술가에게도 창작활동 지원 확대

NArT(New Artist Trend)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제작여건을 마련해 주는 본 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지원사업은 대부분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 예술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활동경력은 짧지만 신선하고 역량 높은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심사와 평가과정에서 차별받곤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이 활동할 기회를 확대시키는, 재단만의 차별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NArT를 2005년 처음 마련했다.

젊은 예술가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NArT는 서울에서 작품을 창작·발표하는 예술가를 지원한다. 2005년에는 연극 분야의 연출가, 무용 분야의 안무가, 미술 분야의 작가 및 큐레이터를 지원했으며, 2006년에는 음악 분야의 작곡가를 추가로 지원했다. 2007년에는 연극, 무용, 음악 분야는 그대로 가되 미술 분야를 시각 분야로 확장해 평면, 입체, 미디어, 혼합 분야 전반에 걸쳐 지원하며, 문학 분야를 신설해 젊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NArT(나트, New Artist Trend)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브랜드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지원사업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에서 예술가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것과는 달리, NArT는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분야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무대에서 사전에 실현하는 Pilot Program(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연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젊은 예술가들이 열정적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요식절차를 위한 심사가 아닌 '작품 성장을 위한 한 단계'로서 의미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시각 분야에서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창작 내용과 전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 심사를 실시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작가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책 제작을 재단에서 담당한다.

2007 7월, NArT 심사의 현장

2007 NArT는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219건의 서류를 접수받았는데, 그중 연극은 25건, 무용 15건, 음악 5건이 지원했으며, 시각 분야에서는 174건이 지원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연출가 5인(김수연 김현탁 문삼화 손기호 이은준), 안무가 4인(김



혜숙 신종철 이순주 이용인), 작곡가 2인(김남국 한정림)이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한 달 동안의 심사 준비 기간과 500만 원의 심사 준비금을 받았다.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젊은 예술가들은 각각 7월 11일(무용), 13일(연극), 16일(음악)에 '열린극장 창동'과 서울문화재단 사옥에서 실연심사를 받았다. 심사 전날 팀당 2시간의 리허설 시간이 할당되어 극장과 무대에 익숙해질 시간이 주어졌고, 심사 당일에는 쇼케이스 20분, 인터뷰 심사 10분이 동일하게 주어져 한 달 동안 각자 준비해온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공연이 아닌 심사의 일환이었지만 실제 공연처럼 진지하게 무대에 섰던 지원자들은 본인 차례의 심사가 끝나 다른 경쟁팀이 공연할 때는 관객이 되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7월 11일 무용 실연심사를 통해 안무가 김혜숙과 이용인이, 7월 13일 연극 실연심사를 통해 연출가 김현탁과 문삼화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7월 16일 음악 실연심사에선 작곡가 김남국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2008년 3월까지 공연을 할 예정이다.

공연예술	연번	신청자명	사업명
무용	1	김혜숙	카카포 앵무새를 보다
	2	이용인	텅빈 혼잡
연극	3	김현탁	전쟁의 역사
	4	문삼화	너 때문에 산다
음악	5	김남국	봉(鵬) - 현대음악회

시각 분야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모두 16건이 선정되었고,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준 뒤 6월 15일 2차 심사를 진행했다. 2차 심사에선 심사 대상자들이 각자 준비해온 사업계획 및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 그리고 토론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선정자를 결정했다. 시각 분야에서 최종 선정된 10인의 작가는 2008년도 2월까지 서울시내 곳곳의 전시장에서 전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각분야	연번	선정자명	사업명
	1	강유진	강유진 회화전
	2	한승구	나르시소스의 두 얼굴
	3	이득영	한강프로젝트II
	4	최수양	개인전
	5	김정주	The City
	6	원성원	dream about tomorrow
	7	이정	접경
	8	한정선	모순을 통한 발견
	9	안세권	seoul, Silent landscape
	10	조병왕	FLAT전



2007년 문학 분야 신규 지원

2007년 NArT는 문학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새로 도입했다.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으며, 등단한 지 5년 미만인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지원 가능하다. 시, 소설, 희곡의 세부 분야로 접수를 받으며, 다른 지원 사업처럼 선정된 후에 작가가 직접 책을 제작해 배포하지 않고, 작가가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단에 책 제작을 직접 제작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가에게 약 2,000부의 책을 제작해 주며 소정의 원고료(시 200만 원, 소설 300만 원 예정)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sfac.or.kr 공지사항 참조)

2008년부터 연초에 접수받는 NArT

올해까지 3~4월에 접수를 받았던 NArT는 지원 선정된 예술가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창작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심사일정을 앞당겨 연초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앞으로 NArT가 젊은 예술가들의 터질 것 같은 신선함을 펼치는 등용문이 되길 바라며, '젊은 예술가'의 '젊은'이 작가의 나이가 아닌 작품세계의 독창성, 실험성으로 여겨져 좀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NArT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현아 hannah@sfac.or.kr

국악이 달라지고 있다. 아니, 국악은 달라져야 한다. 국악은 더 이상 '나라음악'이 아니다. 국악은 앞으로 '세계음악'이 되어야 한다. 전통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란 생각으로 국악에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부각된다. 세계적인 보편성 속에서 한국음악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소그룹이 각광받는다.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

한국의 전통예술을 열린 시각으로 보는 젊은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국악계 내부의 뿌리 깊은 전승을 계승하면서, 학맥이나 인맥에 구속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국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넓은 무대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악기는 가야금과 해금이다. 지난 20세기에는 가야금을 통해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21세기에는 해금을 통해 활발한 움직임이 펼쳐지며, 최근에는 아쟁의 약진이 돋보인다.

지금 국악계의 많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만, 한정된 지면에 다 담기는 어렵다. 일단 가야금, 해금, 아쟁 같은 현악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을 짚어보려 한다.

12현 가야금에서 25현 가야금으로, 선율 중심에서 화성 중심으로

우선 현재 한국음악의 다양화의 흐름을 있게 한 전(前) 세대의 노력을 살펴볼까? 한국음악의 새로운 기운은 가야금에서 출발한다. 1960년대 초반, 황병기라는 걸출한 작곡가 겸 연주자가 있었다. 그에 의해 한국음악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1980년대 중반, 가야금은 자기 변신을 시도한다. 기존의 12줄보다 많은 줄을 사용하는 가야금이 출현했다. 지금은 이를 다현금(多絃琴)이라 부른다. 21현, 17현, 18현, 22현, 25현 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17현과 25현으로 정리됐다.

예술의 새로운 지형

국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젊은 기운

윤중강 (음악평론가, 공연기획자)



여울

출만 늘어 난 게 아니다. 음악도 많이 달라졌다. 그간의 독주 중심의 가야금 음악은 이제 앙상블 위주로 전환됐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은 서울새울가야금삼중주단이다. 박현숙, 김해숙, 김일륜 세 명의 연주자는 '가야금 3중주'의 틀을 만들었다. 그들은 25현 가야금 3대를 한 번에 연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음악은 고음 가야금, 중음 가야금, 저음 가야금이라는 각기 음역이 다른 석 대의 가야금 앙상블에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 이들에 의해 가야금 음악은 화성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가야금 삼중주 음악의 발전은 이들 세 명의 출중한 연주자와 함께 백대웅, 박범훈이라는 걸출한 작곡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앙상블이 만들어낸 가야금의 새로운 동서남북 : 사계, 여울, 속가연, 아우라

2000년대 들어 가야금 음악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단체로 우선 가야금 앙상블 '사계(四界)'와 '여울'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4대의 가야금을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사계'는 이성천, 이견용의 클래식적인 음악을 비롯해, 장영규의 아방가르드적인 음악을 수용하면서 가야금 레퍼토리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사계보다 젊은 축인 '여울'은 발랄함과 신선함을 새로운 콘셉트로 삼았다. 사계가 클래식한 느낌이라면, 여울은 캐주얼한 느낌이 돋보인다. 그들은 팝과 재즈의 스탠더드넘버를 가져와 가야금으로 표현해냈다.

현재 가야금 대중화의 중심에 속명가야금연주단(이

하 속가연)이 있다. 속명여자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 출신 연주자로 구성된 이들은 국악을 클래식, 힙합과 섞은 퓨전 레퍼토리 '캐논'을 통해 대중들 깊숙이 다가갔다. 속가연은 김일륜이 음악적인 기초를 닦은 후 음악학자 송혜진이 이끌면서 우리 국악계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했다. 그들의 음반 판매량과 공연 횟수는 일반 대중음악과 견줄만하다. 국악도 일반인들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속가연이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들이 또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신의 세 명의 젊은이로 구성된 '아우라'이다. '아우라'의 박경소, 민혜인, 박설현은 한국 서양음악계의 유능한 여성 작곡가와 만나 가야금의 영역을 새롭게 확대했다. 이들은 임지선, 임준희 같은 서양음악을 전공한 여성 작곡가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작품을 선호한다. 특히 김희정의 작품과 만나면서는 좀 더 독특한 색깔을 드러낸다. 보통 3인조 가야금 연주는 통상적으로 석 대의 가야금을 연주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관습을 깨고 한 대의 가야금을 세 명의 연주자가 연주했다. 또한 세 명의 연주자가 무대에서 실제로 연주하면서, 미리 녹음된 음악을 실제 연주에 겹쳐 들려주면서 실제로는 세 명이 연주했으나 청각적으로는 여섯 명이 연주하는 효과를 내는 작품도 선보였다. 이렇듯 작곡가와 연주자의 콤비를 통해 가야금 음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냈다. '아우라'는 아직 예술적인 카리스마는 약해 보인다. 하지만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앙상블의 힘은 인정할만하다. 특히 작은 소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해 언제나 섬세한 앙상블에



아우라



치중하는 노력은 앙상블 혹은 실내악이 갖는 본래적인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 요즘 국악 분야는 크고, 강하고, 높은 소리를 선호하는 추세인데 반해, 이들의 작고, 섬세하고, 나직한 울림은 오히려 마음에 더 깊은 여운을 남긴다.

물론 이들 네 단체 외에도 주목할만한 단체가 많다. 그럼에도 이 네 단체는 가야금음악의 새로운 동서남북 지형도를 구축하면서, 한국음악의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금의 '그' 세 사람, 해금의 '또' 세 사람

해금은 다른 지면을 통해 많이 다루어지니 여기서는 간단히 해금계의 주요 아티스트를 거명해보는 데 그치려 한다. 지난 세계 해금 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작곡가는 김영재였다. 그는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해금 음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해금의 가장 대중적인 곡인 '적념(寂念)'을 비롯해, 묘사 음악의 4부작이라 할 '조명곡(鳥鳴曲)' '계명곡(鷄鳴曲)' '견명곡(犬鳴曲)' '숲속 다람쥐'는 각각 새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강아지가 노는 모습, 다람쥐가 노는 모습을 묘사해 해금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민속악의 장단 위에서 펼쳐지는 해금의 기교가 돋보인다.

한편 해금 음악의 3인방으로 정수년, 강은일, 김애라라는 스타급 연주자가 있다. 정수년은 해금 연주자 안에서도 최고의 연주자로 인정받았는데, 그의 <공(空)>이란 음반은 해금 음악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강은일은 '해금의 디바'로 통하는데,

그는 열정적인 연주로 무대에서 더욱 돋보인다. 김애라는 신세대들의 감수성을 가장 잘 읽는 해금 연주자로 대중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장 콘서트 형식인 '토크 콘서트'에 가장 어울리는 해금 연주자이다.

이들 외에 또 다른 3인방으로 김성아, 김정림, 안수련을 들 수 있다. 김성아는 무대에서 중국악기인 얼후(二胡) 연주곡을 해금으로 도전하기도 했다. 아직 음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대중과 친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의 역량을 간과할 수는 없다. 민속악 연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김정림은 해금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담긴 <해피 해금>이란 음반을 올해 내놓았다. 그동안 해금 음악이 가진 감성적 혹은 애상적인 측면과 거리감을 두면서도 해금 음악 특유의 밝고 맑은 느낌을 대중들에게 새롭게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안수련은 민속악적인 절절함을 해금을 통해 잘 표현해낸다. 그의 해금 연주곡은 창극 <청>에서 주제음악으로도 사용되었는데, 그는 '절절한 아픔' 혹은 '찬란한 슬픔'을 해금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신세대적인 너무나 신세대적인 : '이꽃별'과 '신날새'

신세대 해금 연주자 중에서 최고의 스타는 '이꽃별'이다. 그는 많은 청소년들이 해금에 관심을 갖도록 한 해금계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최근 '신날새'도 음반을 내놓았다. 그의 음반에서는 다른 악기의 도움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해금 특유의 편안한 소리를 강조한다.



강은일



신날새

'해금으로 여는 아침'이란 말이 가능할 정도로 단정하면서 다정한 그의 연주는 주목할 만하다.

아쟁계의 새로운 다크호스 : 이문수와 김상훈

최근 아쟁 분야에서 김상훈과 이문수라는 두 명의 연주자가 독집 음반을 내놓았다. 이들은 또한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아쟁 앙상블 '아르크'를 만들어 아쟁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상훈의 음반은 요즘 일반적인 퓨전음악과는 차별된다. '키리에'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종교적인 깊이를 바탕으로 아쟁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사유를 공유하고자 한다. 아쟁은 전통적으로 대아쟁(정악아쟁)과 소아쟁(산조아쟁)으로 크게 나뉘는데, 그는 대아쟁이 갖고 있는 속성을 잘 표현해낸다. 한국 악기는 대개 사람의 목소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중음역(中音域)에 치중하는데, 대아쟁은 가장 낮은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이다. 그는 심연(深淵)의 깊이를 아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김상훈은 이렇게 퓨전음악이 대세인 국악계에서 아쟁이 가진 본질적인 소리를 탐구한다.

이문수의 음반 <공유>는 최근 국악계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른바 이지리스닝 계열의 음악이다. 최근 이런 경향을 지닌 작곡가로는 강상구, 김신원, 박경훈 등이 있다. 이문수는 그동안 해금 혹은 소금이란 악기를 통해 성취했던 대중적인 기운을, 아쟁이라는 악기를 통해 이입시키고자 한다. 해금의 감수성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것과 '같은 듯



이문수



김상훈

하면서도 다른' 아쟁의 매력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문수는 특유의 '끼'로 아쟁의 대중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들의 시도는 값진 것이나, 아직은 아쉬운 점도 많다. 전통음악이 주는 무게감에 따르지 못하거나, 때로는 첼로 음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를 바탕으로 아쟁만의 고유한 개성이 살아 있는 음악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본다. 김상훈의 '아폴론적'인 매력과 이문수의 '디오니소스'적인 매력은 한국 아쟁 음악의 새로운 양대 흐름이 되었다. 이제 아쟁 음악도 해금 음악에 버금가는 대중화의 물꼬를 텄다.

21세기 국악은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국악의 지상목표는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이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20세기적인 필요성에서 대두된 논리였다. 이를 대체할 21세기의 논리는 '한국 음악의 창조와 확산'이다. 전통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통을 넘어서는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한 '그 무엇'과 만날 필요가 있다. 지금 국악계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창조적인 생각(creative minds)'을 요구한다. 국악의 대중화 혹은 세계화를 꾀하기 위해선 아직은 국악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이제 국악은 명실상부한 하이브리드(hybrid) 시대로 가고 있다. 앞에 등장한 아티스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개인과 그룹들이 이제 한국 음악의 찬란한 21세기를 거침없이 열 것이다.

윤중강
2004년 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악제 '명인에게 길을 묻다' 예술감독으로 활동. 현재 국악방송 '이 땅의 모든 음악, 윤중강입니다' 진행
sige6163@hanmail.net

젊은 무용가들, 무대 위의 꿈과 좌절의 현실 속에서

김경애 (댄스포럼 대표)



금년 들어 특히 무용가들의 개인공연이 부쩍 줄어들었다. 개인공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이름을 확립한 중견 혹은 리더 급의 무용가들이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춤 공연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관객 수입에 의존하지 않던 무용가들에게 대학은 든든한 지원 배경이었다.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 무용가들은 학교 시설(연습실)에서 학생(무용수)과 함께 대학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금년 들어 이미 몇몇 대학이 무용과를 폐쇄하고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등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이것은 금년 들어 춤 활동이나 무용학과가 경쟁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됐다. 그것은 대중이 아닌 대학의 든든한 지원만을 배경 삼아 안일하게 성장해온 무용계 전체의 책임이라 진단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관의 지원금조차 많이 줄어든 상태. 또 극장을 대관하는 비용도 가속도로 늘어 이제는 개인 무용가들이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3,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무용가가 토월극장에서 공연하려면 최소 7,000만 원의 경비를 들여야 한다. 그만큼 개인 무용가들이 극장의 운영비나 연습비 등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기성의 무용가들이 작업을 둔화시키는 상태에 단연 돋보이는 것은 젊은 무용가들의 작업이다. 이들은 대체로 기획공연에 합류해 작품을 만드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젊은 무용가의 작업이 돋보였다.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과 모다페 국제무용제에 참가한 한국의 젊은 무용가들은 초청된 외국 무용가들과 비교되었다. 또한 '즉흥춤 페스티벌', 한국무용협회의 '젊은 안무가전', 그리고 올해 10회를 맞이한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이 열렸다. 또한 8월

에는 국립무용단이 기획하는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가 공연되는데, 이는 한국 전통춤을 젊은 안무가들이 재해석한 무대이다. 그밖에 M극장, 창무포스트 같은 소극장에서 기획공연이 열렸으며, 스튜디오 공연이라는 새로운 워크숍 형태의 공연이 줄을 이었다.

스튜디오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작년 처음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공연은 연습실의 의미가 짙은 스튜디오를 간이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켜 워크숍 형태로 작품발표회를 여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무용가'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이전에 새내기를 발굴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 무용계의 병폐 중 하나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지 않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혹은 남이 하나까 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스튜디오가 양산한 것이다. 이는 당초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결국 모두를 위축시킨 셈이다. 스튜디오춤이라는 독특한 양식의 무용공연의 창출도 가능해졌지만, 현재는 뚜렷하게 그 개성을 보이는 장소나 단체는 없다. 저마다 연습실을 가진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스튜디오춤한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또한 서로 위축시킨 꼴이다. 무용계 새로운 지형으로 부상되는 듯싶다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렸다.

젊은 무용가들의 활동을 보면 학벌 위주의 동인제 무용단이 파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용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여기에서 배출된 무용 인구가 많아져 생긴 현상이다. 각 대학의 전공자들이 모여 만든 동인제 무용단은 과거 젊은 안무자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였으며, 서로 모자라는 힘을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해왔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과 '창무회'이다. 현재에는 그런 동인제 무용단에서 인재가 나오기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으로 중

심축이 옮겨졌다. 특히 무용원 출신들은 개런티를 받고 초청되어 공연활동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PD 시스템의 형태를 무용계에도 도입시켰다. 물론 프로듀서가 작품을 제작해내는 엄격한 의미의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무용단체가 우수한 기량 보유자들 중에서 주역 무용수를 택해 초청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젊은 무용계에 걸치기 출연이나 무용의 개성 함몰 같은 역기능도 나타났다. 하지만 무용수들도 다른 예술처럼 우수하면 개런티를 받을 수 있다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젊은 무용가들의 의식이 매우 개인주의화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것은 무용이라는 예술의 창작과정이 집단적이기 때문에, 개인 인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무용을 창작하는 풍토나 작품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주의적 성향은 서로 돕고 희생하는 동인제 시대의 풍토와 달리 일회성의 작업에 그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능한 젊은 무용가들이 단기적인 자기 목표에만 충실해 기성 진영의 지원에 대해 표리부동한 형상을 보인다. 이것은 젊은 무용가들이 큰 인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중하차 하도록 만드는 큰 원인이다. 단기 이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장기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06년까지 정점에 선 젊은 무용가들의 세(勢)가 금년 들어 급격하게 위축된 것도 그런 까닭에서 유래했다.

최근 남성 무용가들이 무용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여성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남성 무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 무용가를 육성해야만 했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는 남성 무용가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아무용콩쿠르, 신인무용콩쿠르, 서울무용제 등에서 입상하면 남성 무용수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혜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각 대학과 무용원에서도 의도적으로 남성 무용가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젊은 무용가의 지형도

는 남성이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단기 연습만큼은 여성을 능가한 점, 연습기간의 할애가 좀 더 용이한 점, 직업적으로 목표의식이 뚜렷한 점, 사회활동성이 강한 점 등의 이유로 최근 젊은 무용가 진영은 남성무용가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이화여대가 춤의 메카로 불리면서 인재를 배출했던 시대와 대비되는 현상이다. 즉 우리의 춤 역사는 60년대의 연구소시대에서,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대학시대, 그리고 2000년을 기점으로 대학 출신이기는 하되 자유롭게 활동하는 개별 무용가시대로 변화해왔다.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직업이 따로 없듯이 무용이 여성만이 하는 고유예술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깨진 사회적인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했다. 게다가 무용이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성이 강한 예술인 만큼 남성은 마음만 먹으면 여성보다 신체적인 면에서 활동이 유리하다. 따라서 지원기관이든 페스티벌의 기획자이든 젊은 무용가를 선정할 때 남성 무용가들을 우선해 뽑는 실정이다.

남성무용가들은 도중하차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반드시 무용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남성 무용가들은 젊음의 전성기에 춤을 즐기다가도 결국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로 무용계를 떠나곤 한다. 이것은 무용계에 힘을 축적시키지 않고 그저 한판 놀다가 떠나는, 그래서 무용계를 황폐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남성 무용가의 증가는 무용계를 끝까지 지키는 여성의 힘을 위축시킨 결과를 낳아 버려 무용계를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젊은 무용가들에게서 드러나는 또 다른 현상은 언더그라운드 춤과의 접목을 꼽을 수 있다. 흥대 입구의 프린지, 대학로 소극장의 춤, 연극이나 퍼포먼스 그룹들과 어울리며 춤활동을 해온 그들은 저마다 어떻게든 성장하면서 무용의 지형도를 크고 새롭게 그리고 있다.



하루

이들의 활동은 기성 무용계에도 수용되었는데, 이들의 춤은 몸동작과 동반예술, 가치관 등이 전위적이어서 새로운 작품 경향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뮤지컬의 확산으로부터 영향받은 것도 크지만, 기성의 무용계에 등장하는 이들은 B보이 같은 대중성과 실험성을 겸비한 새로운 시도로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기성 무용계의 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성무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좌절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젊은 무용가들이 그려내는 작품들은 다양하다.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도발성이 특징이다. 독창성을 지닌 무용가들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다. 대체로 유럽에서 연수받은 젊은 무용가들이 늘어나면서 유럽, 특히 벨기에 풍의 작품이 큰 바람을 타고 있다. 피나 바우쉬가 창안한 '탄츠테아터'가 성공을 거둔 이후 현실과 자아에 대한 극한적 메시지를 극성(劇性)과 함께 추구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특히 작년 후반부터는 드라마와 접목한, 준(準)연극 성향의 무용이나, 춤이 아닌 춤, 영상 같은 멀티미어를 활용한, 때로는 가학적인 요소까지 가미한 작품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러나 젊은 무용가들의 춤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처럼 유럽의 정서, 전개기법 등이 빠르게 무대에 펼쳐지지만,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유행물들이 무대를 점령하곤 한다. 오리지널리티나 독창성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것이 우리 젊은 무용가들이 장생(長生)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금년 상반기의 경우, 같은 기획에 오른 다른 무용가들의 작품에서 똑같은 유형의 파트너링 전개기법을 보곤 하는데, 이는 그저 쉽게 모방하는 젊은 무용가들의 의식을 목격하는 셈이다.

외국 무용계 인사들도 우리 무용수들의 기량을 출중하다고 인정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안무의 문제점을 의식해 젊은 안무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프로그램을 금년 봄에 만들었다. 독창성만 있다면 우리 젊은 무용가들은 이미 세계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기량을 확립한 상태이다. 이들이 계속 세계무대에 설 수 있도록 창의력을 기르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게 절실하다.

김경애
월간 댄스포럼 발행인이자 춤(무용) 평론가이다.
ae@danceforum.com



미
리
보
기

이희명

고양미술창작 스튜디오 제 3기 입주 작가(2006~2007) **개인전**/ 창 갤러리 기획공모, 변형식물, 창 갤러리, 서울(2006) **수상**/ 제28회 중앙미술대전 대상(2006) **단체전**/ Text In Bodyscape, 서울시립미술관, 서울(2007), 도시의 빨간구두, 인사아트센터, 서울(2007), 그 꽃, 통인화랑, 서울(2007), 메르츠의 방, 서울시립미술관, 서울(2006), 제28회 중앙미술대전, 예술의전당, 서울(2006), 생명체 형식, 조선화랑, 서울(2006)





나는 나의 작은 작업실이란 현실적인 공간 안에서 예쁜 상상을 한다.
 의자에 앉아 연필을 들고 하얀 종이에..노란 종이에..빨간 종이에...
 예쁜 상상을 그려 나간다.
 딱딱한 연필의 사각사각 느낌..
 달고 달아 지워진 엄지 손끝의 지문..
 사각거리며 선들이 되어지는 연필가루..
 폭신한 쿠션..
 책상에 기댄 팔꿈치의 선흥빛 명..
 상상은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눈으로..나의 귀로..나의 피부로...
 그래서 난 또 다른 상상 속으로 빠져 든다.

김은영



미
리
보
기

꿈꾸는 도시

내 고향은 이맘때부터 인삼 거두기가 시작됩니다. 밭에서 캐온 인삼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껍질을 벗기고 정성스레 갈무리하는 일들로 고향의 여름은 다른 농촌보다 갑절로 분주합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나간 논두렁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한창입니다. 잠시 저녁 산보를 끝내고 돌아온 마당 가운데는 어느새 연기 자욱한 모깃불이 타오릅니다. '명석'을 넓게 펼쳐 놓은 자리에는 갓 쪄낸 노란 옥수수가 소쿠리 채 올라옵니다. 먹기 전에 이웃 아주머니를 모셔오는 일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어른들은 두런두런 당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별이 총총히 떠 있는 밤하늘을 누워 올려보다가 그만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 무렵이면 대문 좁 잠그라는 어머니의 당부와 함께 나를 흔들어 깨우는 인기척은 어김없는 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득한 시간입니다. 한참 사춘기가 시작되던 여학교 무렵이었지요. 큰일을 시작하셨다며 서울 출입이 많으셨던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게 셰익스피어 전집 중 《베니스의 상인》을 골라 보내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책 선물입니다. 그날부터 서울은 내게 동경의 도시였으며 막연히 그리운 무언가가 있는 듯 항상 나를 서성이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대학 입시를 치르러 서울로 올라오던 날은 이제 먼 추억이 되었지만, 길을 잃고 면접시간을 놓쳐 여기저기 헤매던 지금의 인사동 길은 지금도 내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필기시험을 끝낸 다음날 면접시간은 10시였습니다. 그날은 바쁜 일이 있으니 혼자 학교를 찾아가 보라며

아버지는 시험장 찾아가는 길을 소상히 일러주셨습니다. 길을 잃지 말라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으셨지요. 11시를 훌쩍 넘기도록 나는 학교를 찾지 못해 그만 면접 시험을 포기하고선 버스정류장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구세주 같은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전날 내 앞에 서 있던 수험번호가 나보다 하나 빠른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은 내게 면접은 학교 사정으로 오후 1시로 연기되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내 말에 웃으면서 내 손을 이끌고 학교까지 함께 가주는 친절도 잊지 않았지요. 그 여학생의 도움으로 나는 면접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내가 태어난 내 고향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삶의 이야기들로 쌓여 있습니다. 이십대 이후 모든 삶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 살아 온 지난날,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세상을 향한 눈매이 이제는 어둡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는 일들이 어느덧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인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TV 화면은 날마다 더 획기적인 것, 더 강한 것, 더 뜨거운 것을 보여주려 애씁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요란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단번에 부활을 이루려는 세상 풍조에 모두가 허둥지둥 급히 달려갑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것은 어느 곳에도 없는 듯 보입니다. 뉴스를 보고 듣는 것이 마냥 두렵고 섬뜩합니다. 작다면 작은 것이지만 이유도 모르게 파헤쳐지는 인도人道며, 멀쩡한 가로수를 하루아침에 뽑아 던지는 자치구自治區의 근시안적

이희자 | 시인

충남에서 태어나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현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포문학상'과 '운동주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집으로 <작은 것과 어려움>의 4권의 시집을 내었고, 다수의 동인지에도 참여했습니다.

행정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희망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강하게 물줄기를 뿜아 올리는 물기둥 사이로 어린아이들이 뛰어 다닙니다. 더러는 넘어져 물줄기에 흠뻑 두들겨 맞기도 하고 더러는 넘어져 젖은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아무도 큰소리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어른들은 즐거워했고 아이들은 점점 흥이 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질어지는 노을빛이 반짝하고 보석처럼 물줄기 위에 내립니다.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잔디광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어깨를 감싸 안은 젊은이들까지 오늘은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가 돛자리 위에 앉아 광장에서 시 낭송을 듣습니다.

동작대교에 빠진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물속에 스민 제 그림자를 보며 먼 곳을 바라보는
사슴의 긴 목이 슬픈 풍경처럼 펼쳐집니다.
전쟁의 상처가 이제는 다 아물었나 했는데
철조망에 걸린 편지로 다시 그날의 슬픔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아픈 상처가 새순처럼 돋아나옵니다.

깊어가는 시간을 따라 더해가는 시 낭송의 열기를, 제주에 부상한 태풍 마니가 가만가만 도닥여 줍니다. 퇴근하다가 혹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들려오는 시 낭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자동차의 유리문도 열립니다. 아주 잠시지만 지상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그 풍경에 찬사를 보내는 듯합니다.

드디어 거기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希望을 보았습니다. 시를 읽는 광장, 시가 있는 도시, 정녕 우리들의 삶이 시詩 안에서, 예술 안에서 치유治癒될 수 있음을. 이제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은 다시 맑아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마주하는 우리는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고향은 신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원 속에 피내도 피내어도 다시 고이는 마르지 않는 추억의 샘물처럼, 그날 내 고향의 별빛들이 시청 앞 잔디광장 밤하늘에 무수히 빛났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
2. 지원부분 및 대상
 - 작가의 미발표된 작품발간 (등단 5년 이내)
 - ※ 등단 기준 : 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추천, 창작집 발간 (등단사실 증명해야함)
 - 시, 소설, 희곡
3. 지원금 지급규모
 - 문학 : 출판사를 입찰해 총서 개념의 개인 작품집 제작(2,000부 예정)을 지원하고 원고료 지원 (시 200만원, 소설 300만원 예정)
4. 제출서류
 - 작품 원고 각 7부 (A4 형태, 작품 묶음 표지에 묶어 제출)
 - 소설 희곡 일 경우 중 · 단편 2~3, 장편 1 편/ 시 15편
 - 등단에 관한 증빙자료 (등단 년도 및 등단 경로 포함) 1부
5. 심사방법
 - 1차, 2차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작품 선정: 9~11월
6. 접수기간 : 8.16(목)~8.31(금) 14:00 마감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sfac.or.kr의 공지사항 560번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도 255-67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접수 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문의처 : 전화 02-3290-7110~5

NArT(나트)?

New Artist Trend. 활동경력이 길지 않더라도 신선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잠재력을 갖춘

'젊은 예술가' 를 발굴해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프로그램입니다.

NArT 2007 New Artist Trend

예술가

Self -

PR

월간 [문화+서울]는 창조적 예술과 문화가 풍요롭게 소통되는 서울의 문화 만들기와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600년 전통의 거대도시 서울 속에 숨어 있는 문화욕구가 제대로 소통될 수 있는 잡지가 되길 바란다.

이에 특집 기획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소개를 다룬 '예술가 Self PR' 란을 마련하였다. 현장의 예술가들이 지면을 통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자유로운 형식의 기고와 작업현장 사진 등을 통해 독자들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생생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것이다. 월간 [문화+서울]은 창조적 예술과 문화가 풍요롭게 소통되는 서울의 문화 만들기와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600년 전통의 거대도시 서울 속에 숨어 있는 문화욕구가 제대로 소통될 수 있는 잡지가 되길 바란다.

이에 특집 기획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소개를 다룬 '예술가 Self PR' 란을 마련하였다. 현장의 예술가들이 지면을 통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자유로운 형식의 기고와 작업현장 사진 등을 통해 독자들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생생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것이다.

'예술가 Self PR'은 글쓰기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아래와 같이 물어보았고, 그에 대한 예술가들의 답글을 함께 올린다.

- ① 본인이 보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나는 이것을 하는 예술가다)
- ② 본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원동력(나는 이것 때문에 예술한다)
- ③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전망(앞으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 ④ 최근 작업 소개
- ⑤ 서울문화재단 및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조정석입니다. (예술가 Self-PR)에서 인사드려 너무나 큰 영광에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막 시작해 배우는 입장에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술가라는 말, 제게는 아직 너무 멀고 먼 이름이니까요.

‘연기는 내 운명’

사실 저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 더군다나 제가 배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고2 때 교회에서 성극을 한번 해본 것이 제 연기의 전부였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타 연주를 너무 좋아해 음대를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음대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었는지 두 번이나 낙방했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주변 분들의 권유로 서울예대 연극과를 지원했습니다. 너무나 운 좋게 합격했고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는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기도 무대도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배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졌죠. 그러던 차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란 장르를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아~ 이 길은 내 길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뛰었고, 뮤지컬 배우로 프로 무대에서 활동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배우라는 이름으로 제가 무대에서 연기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물론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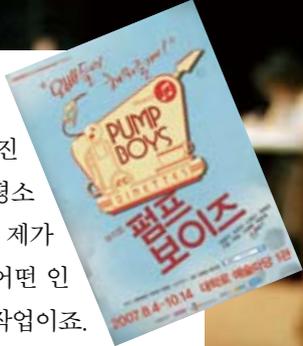
조정석 - 뮤지컬 배우
다른 누군가의 삶을 연기하며 산다

PUMP BOYS

지난 3년간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을 만큼 바쁘게 달려오면서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택한 배우의 길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는 없지만, 배우라는 이름 아래 제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배우라는 직업이 가진 매력은 누구나 이야기하듯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평소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이긴 하지만, 감정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무대에 서면 제가 가진 성격 말고도 많은 모습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존하지 않는 어떤 인물을 나, 조정석이라는 사람으로 표현해 낸다는 것.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작업이죠.

“조정석이 나오는 공연이니까 믿을 수 있어”

앞으로 진정한 배우가 되려고 걸어왔던 것보다 더 멀고 험한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조정석이 나오는 공연이니까 믿을 수 있어” 혹은 “조정석은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자기만의 색깔로 잘 만들어 내”라는 믿음을 관객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제 목표이죠. 그 목표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몰’과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몰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사기그릇에도 주전자에도 컵에도 너무 잘 담겨지듯 저도 영화, 연극, 뮤지컬 장르를 넘나들며 어떤 장르도 모두 소화해내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투명한 몰이 어떤 색깔이라도 자기 색깔로 만들어내듯 저도 맡는 역할마다 다른 색의 몰감을 탄 몰처럼 그렇게 변신하는 배우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목표입니다. 오늘도 그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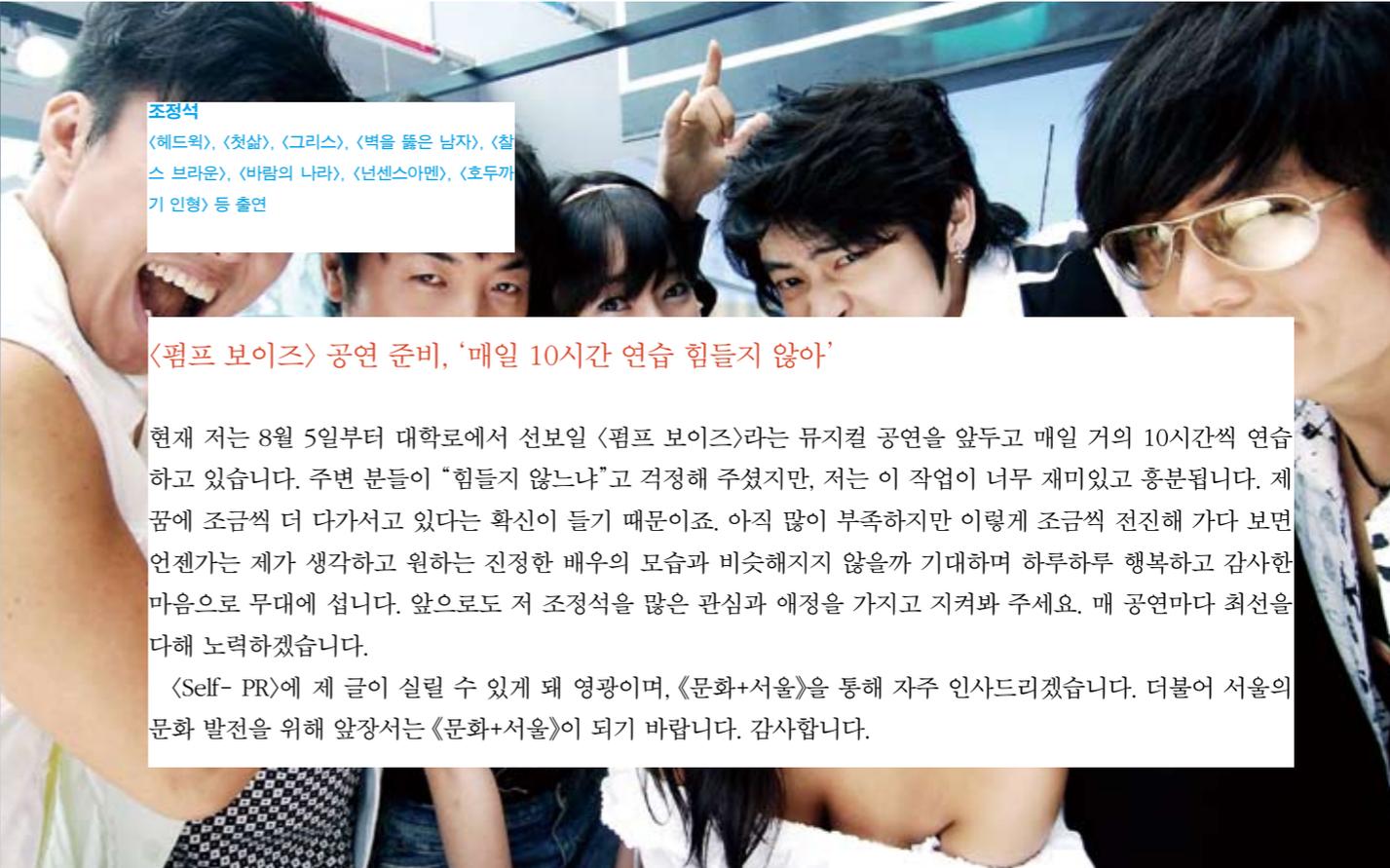


조정석
〈헤드윅〉, 〈첫사랑〉, 〈그리스〉, 〈벽을 뚫은 남자〉, 〈찰스 브라운〉, 〈비람의 나라〉, 〈년센스아멘〉, 〈호두까기 인형〉 등 출연

〈펌프 보이즈〉 공연 준비, ‘매일 10시간 연습 힘들지 않아’

현재 저는 8월 5일부터 대학로에서 선보일 〈펌프 보이즈〉라는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매일 거의 10시간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힘들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이 작업이 너무 재미있고 흥분됩니다. 제 꿈에 조금씩 더 다가서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전진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진정한 배우의 모습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앞으로도 저 조정석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매 공연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Self-PR〉에 제 글이 실릴 수 있게 돼 영광이며, 《문화+서울》을 통해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의 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문화+서울》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남의 계기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교류하다

나는 이러한 사물을 해체하고 조립하면서 식물이나 악기 모양, 또는 인간의 모습을 한 형상을 만들어 간다. 나는 작품을 만들 때 소리를 도입하는데 일종의 환경음, 즉 주변 일상의 소리를 채집해 쓴다. 때론 라디오의 소리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소리마다 스위치를 연결해 놓아 관람하는 사람들이 우연적인 소리를 직접 조합해 보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소리설치 작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안무가 안애순의 춤 <비명-기억의 놀이>에서 작곡을 맡았던 김기영,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김화림 씨와 함께 했고,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연극연출가 김아라, 시인 조병준, 김근과 함께 사운드 퍼포먼스를 공연해 왔다. 미리 정해진 배경음악이 아니라 라디오의 즉흥적인 소리를 조합해 배경으로 하는 이 공연은 다른 장르의 예술과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조금은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연한 동행 - 진솔한 사람들의 진솔한 말과 풍경

늦은 나이에 군을 제대하고 90년 초 복학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사진을 전공하는 친구의 제의로 금강(錦江)의 발원지를 찾아나서는 도보여행을 했다. 졸업 후에도 몇 번의 여행을 함께했지만, 그때는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목적보다 그저 걷는 여행이 좋았고, 친구의 제법 무거운 장비를 대신 들어주는 일종의 포터 역할을 하면서 산천을 두루 구경하는 재미를 만끽하는 데 만족했다. 강의 하류에서 상류로 이르는 여정은 때로는 험난하기도 때로

는 지루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솔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도보여행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숨겨진 비경을 볼 수도 있었다.

그 무렵 내 작업이 너무 피상적이라 고민하던 차에 이 여행은 내 작업의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하나는 사람들의 언어, 걸리지 않은 사투리에서 날 것 같은 생생하고 진솔한 삶을 느낀 것이다. 그 후 금강과 장항선을 주제로 삼아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을 채집하고 기록했으며, 93년에는 경기도 화전에서 몇 년간 살며 도시 주변부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풍경 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최근 작업 - 주민들 삶의 애환을 기록하다

최근에는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 중촌면에서 진행 중인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전시 준비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그 지역을 답사하고 소리를 채집하면서 자주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다. 이번 전시는 한 지역이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 명의 작가들이 함께 기록하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개념적으로 기록하는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방송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녹취해 상징적 소리 다큐멘트 작업을 하려 한다. 작업을 하면서 내 스스로 소리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지만 결국엔 소리, 특히 언어에서 오는 원시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조형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

정하응 - 설치미술가 공간 - 사물의 운명 - 소리

대체로 내 작품은 어떤 특정한 장소 또는 공간을 만나면서 시작되며, 그러한 공간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면 작품에 대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때 사용하는 재료도 길을 가면서 혹은 여행 중에 발견하거나, 헌 가구를 재조립하거나, 누군가 쓰라고 주어서 모아놓은 수집품을 결합해 작업하곤 한다. 새것보다 때 묻은 재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것 같다. 사용을 다한 물건, 소외된 잉여 물품이기도 한 그것들은 나름대로 사연을 지닌 듯해 애착이 간다.

“현대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현대음악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라고 답한다. 물론 현대음악이 어려울 수 있고,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연주자의 입장에서 연주하기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편견일 수 있다. 현대음악은 무조건 난해하고 어렵다는 편견 말이다.

음악에 편견 적은 사람일수록 현대음악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에게 현대음악을 들려주면 그들은 재미있다고 신기하다고 흥미를 나타낸다.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무조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것, 현대음악이 즐겁고 신선하고 새로운 음악이라는 것, 새로운 소리의 즐거움을 찾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상블 ‘에클라(Eclat)’의 존재 의미이며 활동 목적이다.

에클라(Eclat)는 빛의 조각, 열정, 성원, 열광 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데, 프랑스의 작곡가 겸 지휘자 피에르 블레즈의 작품 <에클라>로도 유명하다. 앙상블 ‘에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현대음악을 연주하는데 한 줄기 빛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한 조각의 음(Tone)까지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소명을 가진다. 국내 작곡가들의 작품을 외국에 소개하거나 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국내에서 초연하는 데 활동의 큰 의미를 두고 있어 국제교류 사절단으로 활동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와 실험적인 연주를 벌이며 레저 콘서트 같은 교육적인 연주를 기획하기도 한다.

‘에클라’는 2004년 작곡가 김진수 교수와 바이올리니스트 윤성원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현재는 1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단원 모두 미국 또는 유럽에 소재한 최고의 학교에서 수학한 뒤 귀국한, 국내 음악계 및 교육계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이다. Chen-i(미국), Hosokawa(일본), Barkauskus(리

투아니아) 같은 외국 작곡가들이 이미 탄탄한 에클라의 연주를 극찬했다.

에클라는 작곡가와의 교류와 청중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존 작곡가들의 신작을 국내에 초연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작곡가들의 새로운 음악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작곡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연주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작곡가들이 오선 위에 담아 놓은 수많은 의미들을 해석해나가는 것은 마치 미로를 헤쳐 나가는 것과 같으며, 곡의 부분 부분을 작곡가들의 설명과 해석을 듣고 연주하는 것은 길을 찾을 때 중요한 힌트를 얻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다.

청중들의 반응 또한 중요하다. 청중들이 음악을 듣고 다양하게 상상하도록 하는 것, 작곡가의 의도가 연주자의 표현을 통해 청중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연주자들의 몫이다. 현대음악에 대해 아니 음악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에클라의 연주를 듣고 “뭔가 잘 모르지만 재미있었어요” “연주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몰입하는 모습이 좋았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술’ 그 자체의 힘을 청중들이 느끼는 것이 아닐까? 아마 청중들은 그런 느낌을 통해 연주자들과 교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에클라는 2004년, 2005년 범음악제(PAN Music Festival)와 2004년, 2005년 아시아작곡연맹(Asian Composers League) 연주회, 2005년 서울국제작곡콩쿠르 본선 연주회에서 연주했으며, 2006년 리투아니아 GAIDA(가이다) 국제현대음악제에 초청받아 연주하기도 했다. 금년도 에클라 정기연주회가 8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 윤이상의 ‘Image for Fl. Ob. Vn. and VC.’(1958)를 비롯해,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의 ‘Sextet for Cl. Hn. String Trio, and Piano’(1984), 하인즈 홀리거(Heinz Holliger)의 ‘Duo for Vn. and VC.’와 나르부타이테(Onte Narbutaite)의 ‘Mozartsommer for Fl. Vn. Va and Harpsichord’ 등 3곡을 국내 초연하며, 루토슬라브 스키(Lutoslawski)의 ‘Subito for Vn. and Piano’를 악장인 윤성원 교수가 연주한다. 금년 정기 연주회에는 윤성원, 이윤희, 김은아, 김홍준(이상 바이올린), 윤진원(비올라), 배기정, 이현정(이상 첼로), 정수안(플루트), 조혜연(오보에), 송호섭(클라리넷), 윤승호(혼), 민경식(피아노), 고현주(하프시코드)와 김진수(지휘)가 참여한다.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연주자와 시민들이, 더 나아가 예술인들과 청중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형성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예술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환산할 수 없고 수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삶의 중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예술문화의 절대적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느낄 수 있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후원 프로그램과 메세나 운동 같은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개발해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이 이루어지고, 청중과 좀 더 친밀한 교류와 참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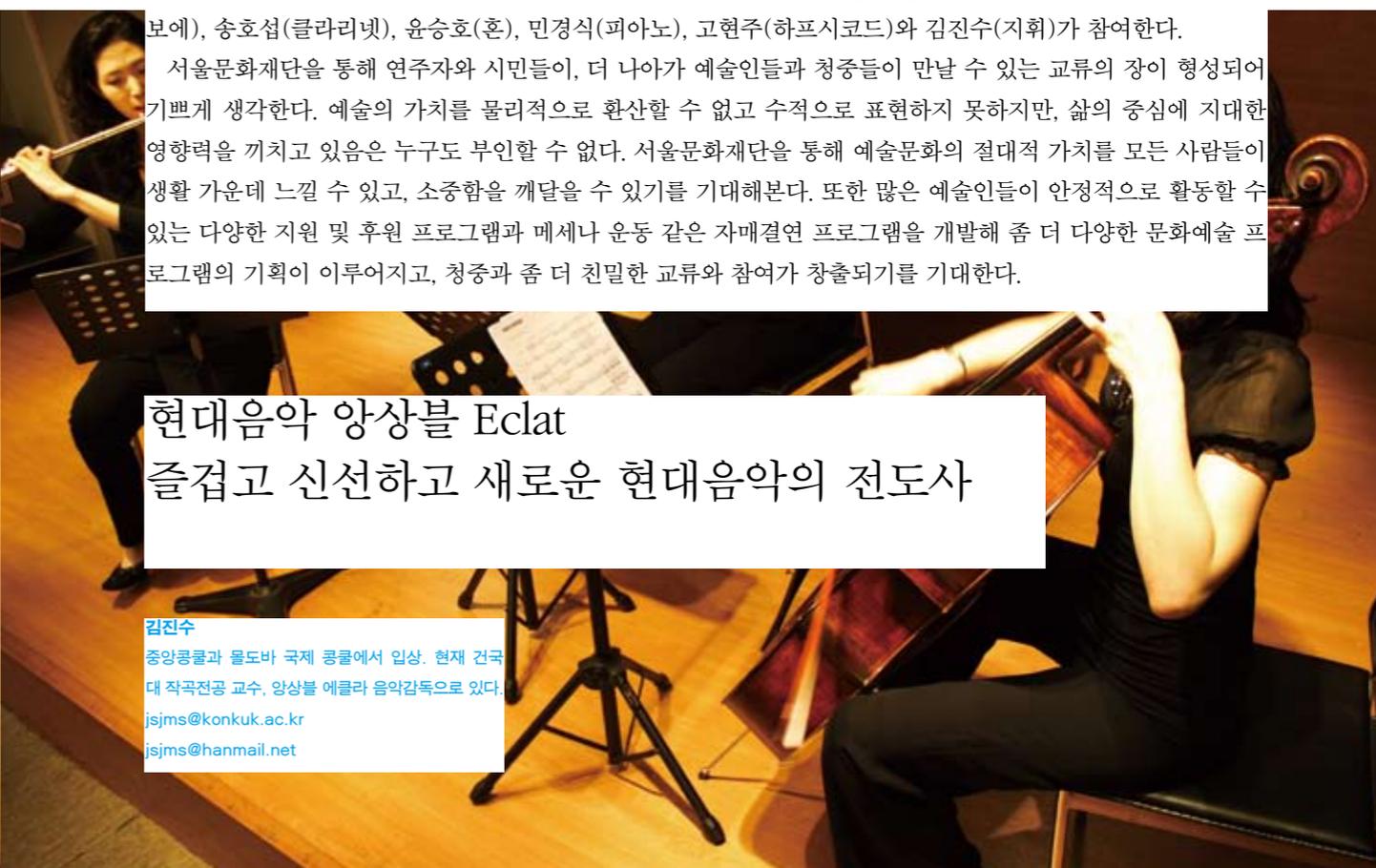
현대음악 앙상블 Eclat 즐겁고 신선하고 새로운 현대음악의 전도사

김진수

중앙콩쿨과 몰도바 국제 콩쿨에서 입상. 현재 건국대 작곡전공 교수, 앙상블 에클라 음악감독으로 있다.

jsjms@konkuk.ac.kr

jsjms@hanmail.net





세계가 감탄하는 유일의 소극장 클러스터

대학로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극장 밀집지역이다. 그래서일까? 흔히들 대학로를 브로드웨이와 비교해 ‘아시아의 브로드웨이’라고 부르곤 한다.

몇 해 전 일본의 유명한 공연장 전문 건축설계사 대표와 미팅을 했다. 그분은 대학로에 어떻게 공연장이 이렇게 많은지, 관객들이 그 공연장을 얼마나 찾는지 매우 궁금해했다. 최근에 대학로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학로에 공연장이 80개다, 90개다, 100개가 넘었다 등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발품을 팔아 대학로에 공연장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하고 세어보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여 개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많기는 많은가 보다. 이화동사거리에서 혜화동로터리, 성북동 방면 길을 거쳐 성균관대학교를 지나 다시 대학로로 들어왔는데 무려 97개나 되었다. 현재 공연장 개관(건립)을 준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학로복합문화공간을 비롯해 5~6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니,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연극인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연장은 너무나 많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2005공연예술실태조사’(격년으로 발표하는 조사라 2007년 버전은 현재 진행 중이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공연장 수는 541개, 그중 서울이 131개라고 하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대학로에 새로운 공연장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97개관은 우리나라 공연장 전체 현황 상 어마어마한 숫자임이 틀림없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88개로 두 번째로 공연장이 많고, 경남이 34개, 전북이 31개, 부산이 30개 순으로 발표되었는데, 대학로에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나머지 15개 시·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공연장이 있다. 가장 공연장 수가 적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6개관이 자리하며, 이는 대학로의 1/15에 불과하다.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공연장이, 겨우 반경 2Km 내의 좁은 지역인 대학로에 몰렸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다.

대학로 Vs. 브로드웨이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브로드웨이는 어떨까? 미국 뉴욕시 맨해튼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스트리트(Street)와 동서를 잇는 애비뉴(Avenue)로 이루어진 바둑판 모양으로 생겼으며, 그중 서쪽 남단에서 동쪽 북단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거리를 브로드웨이라고 한다. 맨해

아시아의 브로드웨이 ‘대학로 II’

남기웅 (서울연극협회 사무국장 / 모아엔터테인먼트 대표)

서울의 문화공간

튼의 41번로(St.)와 54번로(St.) 사이에서부터 6번가(Ave.)과 9번가(Ave.) 사이를 브로드웨이 극장가라고 부르며, 극장가 내에 300석 이상의 공연장만 브로드웨이극장으로 인정(전미프로듀서극장주연협회/League of American Theaters and Producers에서 인정)한다.

남북으로 연결된 스트리트가 한 블록 당 약 80미터 정도이고 동서로 이어지는 애비뉴는 약 300미터이니,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거리는 남북으로 약 1.12km, 동서로는 약 1.2km로 넓이가 1,344km²이다.

우리 대학로가 남북으로 1.2km에 동서로는 450m(대학로 문화지구 범위)로 540km²로이니 브로드웨이가 2배 이상 큰 셈이다. 그러나 브로드웨이에는 41개, 대학로에는 97개의 극장이 들어서 있으니 우리 대학로가 전 세계를 통틀어 진정한 공연예술의 메카가 아닐까!

브로드웨이의 경우 41번로(St.)에서 54번로(St.) 내에 300석 이상의 객석을 갖추고 상업적인 작품을 많이 선보이는 극장을 ‘브로드웨이’로, 예술성과 흥행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이 공연되는 100~299석의 객석을 가진 극장은 ‘오프브로드웨이’, 그 이하의 객석을 보유하며 예술성만을 추구하는 실험극들이 주로 오르는 극장은 ‘오프오프브로드웨이’라고 부른다.

대학로에서도 브로드웨이처럼 ‘인대학로’ ‘오프대학로’ 또는 ‘대학로 강남’과 ‘대학로 강북’으로 부르기도 한다. 6차선의 대학로 차도를 기점으로 하여 마로니에 공원 쪽을 ‘인대학로’ 또는 ‘대학로 강남’이라고 부르고, 길 건너 대명거리 쪽(혜화역 4번 출구)과 혜화동과 성대 쪽을 ‘오프대학로’ 또는 ‘대학로 강북’이라고 부른다. 이는 브로드웨이처럼 좌석 수나 극장의 성격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고, ‘인대학로’에서 먼저 공연장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쪽의 임대료가 비싸져 그나마 저렴한 길 건너에 극장들을 만들기 시작해 생긴 말이다. 실제로 ‘대학로 강남’과 ‘대학로 강북’의 수준(식당의 메뉴나 가격)도 서울 강남북의 차이처럼 강남이 훨씬 비싸긴 하다. - Tip : 대학로에 나오셨을 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강북 쪽에 가시면 저렴하고 맛있는 집들이 많으니 애용해 보시길! - 근래에는 다시 ‘인대학로’ 쪽에 많은 극장들이 들어서는데, 접근성이 ‘인’쪽이 훨씬 용이하기에 관객들은 ‘인대학로’를 선호한다. 물론 대학로의 ‘인’과 ‘오프’, ‘강남’과 ‘강북’이라는 말은 공연장의 수준이나 성격과 아무런 상관없는, 대학로에 사는 ‘쟁이’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니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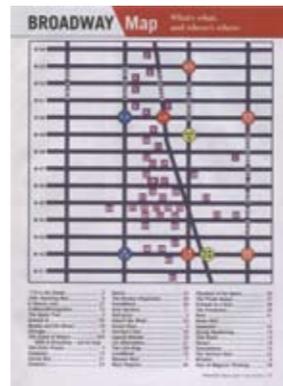
다양한 공연 문화가 공존하는 대학로

대학로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공간이다. 그래서 대학로에 가면 언제든지 공연을, 공연예술을 모두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배우가 되고픈 사람들이 피나리붓집 하나 달랑 메고 무작정 대학로로



브로드웨이 티켓박스 앞

브로드웨이 공연장 지도



번호	공연장	객석수	전화번호	비고	번호	공연장	객석수	전화번호	비고
1	공연장세익스피어	150석	02-743-0771		49	샐터파랑새극장	160석	02-763-8969	
2	김길이를	200석	02-741-1011	개그 전용관	50	설치극장정미소	168석	02-3673-2001	
3	게릴라극장	95석	02-763-1268		51	성균소극장	100석	02-747-5035	전통예술 전용관
4	글로벌극장	110석	02-764-4600		52	세우아트센터	160석	02-3141-1345	
5	김동수올레이허우스	180석	02-3675-4675		53	소극장속제	103석	02-765-4891	
6	까말소극장	100석	02-766-2072		54	소극장피카소	85석	02-3672-7971	
7	낙산씨어터	120석	02-744-2227		55	손가락놀이극장	70석	02-747-4222	어린이극 전용관
8	단막극장	100석	02-765-1544		56	소틱 씨어터 1관	130석	02-744-2588	
9	대학로극장	150석	02-764-6052		57	소틱 씨어터 2관	150석	02-744-2588	
10	대학로라이브극장	300석	02-744-6700		58	스튜디오76	120석	02-764-3076	
11	대학로문화공간이다 1관	370석	02-745-1987		59	신연아트홀	162석	02-3676-0282	
12	대학로문화공간이다 2관	160석	02-745-1987		60	씨어터디어더	120석	02-742-1602	
13	대학로예술마당 1관	225석	02-744-4337		61	씨어터SH	300석	02-747-2266	
14	대학로예술마당 2관	230석	02-744-4337		62	아롱구지	142석	02-745-3966	
15	대학로예술마당 3관	212석	02-744-4337		6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608석	02-760-4648	
16	대학로예술마당 4관	205석	02-744-4337		64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32석	02-760-4648	
17	대학로우리극장	175석	02-745-0308		65	아리랑소극장	120석	02-741-5332	
18	대학로팝아트홀	100석	02-747-3066	개그 전용관	66	아트홀레이씨어터	150석	02-747-4701	
19	대극씨어터	350석	02-741-7251	미리오노트 전용관	67	아트홀스타시티 1관	160석	02-747-9139	
20	도발공간 앙산반	90석	02-744-1891		68	아트홀스타시티 2관	150석	02-747-9139	
21	동역여대공연예술센터 대극장	400석	02-940-4990		69	알파벳소극장	177석	02-745-8833	
22	동승무대소극장	110석	02-735-7073		70	연우소극장	120석	02-744-7090	
23	동승아트센터 동승홀	450석	02-766-3390		71	열린극장	150석	02-743-6474	
24	동승아트센터 소극장	150석	02-766-3390		72	예술극장나무와물	154석	02-745-2124	
25	동키홀	300석	02-3443-6487	동키소 전용관	73	오아시스세탁소극장	110석	02-3673-0888	오아시스 세탁소 승객사건 전용관
26	두레홀 1관	100석	02-741-5978		74	우석퍼포트리극장	100석	02-764-7501	
27	두레홀 2관	150석	02-741-5978		75	이랑씨어터	230석	02-766-1717	
28	두레홀 3관	220석	02-741-5978		76	인어소극장	200석	02-763-2151	
29	디마팩홀	50석	02-741-8888		77	인젤아트홀 1관	240석	02-741-0252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전용관
30	루나틱전용관	180석	02-3674-1010	뮤지컬 루나틱 전용관	78	인젤아트홀 2관	160석	02-741-0252	
31	르메이르소극장	250석	02-747-2232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사이 전용관	79	정보소극장	108석	02-3673-0554	
32	마당세실극장	100석	02-747-5773		80	질러홀	250석	02-741-9700	비Show 전용관
33	마로니에극장	100석	02-744-0686		81	창조콘서트홀	300석	02-747-7001	
34	문화공간엘림홀	180석	02-743-0017		82	웹트예술극장	108석	02-742-0333	
35	미라클씨어터 1관	120석	02-742-7262	미라클 전용관	83	청아소극장	120석	02-3672-4293	
36	미라클씨어터 2관	99석	02-742-7262	헤피투게더 전용관	84	PMC대학로자유극장	271석	02-738-8289	
37	박승대홀 1관	150석	02-747-9009	개그 전용관	85	컬투홀 1관	128석	02-743-2468	개그 전용관
38	박승대홀 2관	150석	02-747-9009	개그 전용관	86	컬투홀 2관	128석	02-743-2468	개그 전용관
39	배우세상 소극장	100석	02-743-2274		87	키득키득아트홀	140석	02-743-1590	개그 전용관
40	블랙박스씨어터	110석	02-745-0745		88	틴틴홀	180석	02-745-5570	
41	사다리아트센터 네모극장	262석	02-763-1355		89	하늘빙소극장	120석	02-747-4222	어린이극 전용관
42	사다리아트센터 동그리극장	183석	02-763-1355		90	학전그린	180석	02-763-8233	뮤지컬 지하철1호선 전용관
43	사다리아트센터 세모극장	223석	02-763-1355	어린이극 전용관	91	학전블루	188석	02-763-8233	
44	상영아트홀 1관	163석	02-744-1394		92	한양레퍼토리씨어터	126석	02-764-6460	
45	상영아트홀 2관	70석	02-744-1394		93	한얼소극장	80석	02-766-7010	
46	상상나눔씨어터	199석	02-741-2002		94	행복한극장	146석	02-747-2090	
47	상상블루소극장	100석	02-747-7491		95	허밍스아트홀	160석	02-764-8760	
48	상상화이트소극장	140석	02-747-7492		96	혜화동1번지	80석	016-730-8560	
					97	환희소극장	100석	02-743-1974	

대학로 공연장 현황 <틴>

몰려드는 게 아닐까?

대학로에는 97개의 공연장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정통 연극부터 어린이극, 뮤지컬, 무용, 콘서트, 개그 공연까지 관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골라 볼 수 있는 공연장들이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전통예술 전용 소극장인 ‘성균소극장’이 성균관대 앞쪽에 개관해 전통예술을 비롯한 모든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한층 거듭났다.

대학로가 공연예술의 메카로 더욱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연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로에 가면 언제든지 그 공연을 볼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퍼토리 공연이 많아져야 한다. 브로드웨이에서 한 공연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매일 공연한 작품은 18년 동안 공연된 ‘캣츠’(지금은 막을 내리고 순회공연 중)가 있다. 그밖에도 ‘오페라의 유령’ ‘코러스 라인’ ‘맘마미아’ 등 브로드웨이에 가면 언제든지 명작을 볼 수 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은 브로드웨이로 몰려든다. 우리 대학로에도 통

런 하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했다. 12년째 꾸준히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하철 1호선'이 있고, 10년을 넘긴 '라이어'와 '사랑은 비를 타고'가 있다.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관객을 맞이하는 '오아시스 세탁소 사건' '염쟁이 유씨' '의자는 잘못 없다' '우동 한 그릇' '마리오네트' 등 계속해서 관객과 함께 룹런을 만들어간다. 아직까지는 '지하철 1호선'이나 '오아시스 세탁소 사건' '사랑은 비를 타고' '마리오네트' 정도만이 전용공간을 가졌을 뿐, 다른 작품은 공연장 대관 상황에 따라 옮겨 다니며 관객과 만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10년, 20년 넘게 관객과 만나는 작품과 그의 전용공간이 대학로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하리라 믿는다.



진정한 아시아의 브로드웨이로 나아가

대학로에는 다양한 공연장들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움 점이 있다면, 대학로에는 300석 이하(92개)의 소극장이 대다수이며 500석 이상으로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물론 규모가 큰 극장에서 좋은 작품을 공연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품으로서 지니는 산업적 가치를 높이면서 좀 더 다양한 공연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대학로에서도 1,0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 있어야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제 대학로는 단순히 공연장이 많은, 우리만의 문화공간이 아니다. 이제 대학로는 해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관광객들이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브로드웨이나 유럽으로 가기보다는 가까운 서울로, 대학로로 오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영어나 한글이나 관광객 입장에서 못 알아듣는 것은 마찬가지! 어짜피 공연은 가슴으로 보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그들에게 우리의 공연을 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오른 훌륭한 명작들을 바로 바로 대학로에서 공연한다면, 해외 관광객들은 그 유명한 공연을 보러 우리의 대학로를 찾을 것이고, 그 후 그들은 우리의 공연을 보면서 대학로에 매료될 것이다.

대학로는 이미 수적으로는 공연예술의 클러스터(Cluster)로 자리매김했다. '난타'나 '점프'는 해외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며 문화산업이다. 이제 대학로라는 문화공간을 문화상품으로, 문화산업으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 개개인의 작품을 팔기보다는 대학로 전체를 거대한 문화상품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야 한다. 진정한 아시아의 브로드웨이로, 아시아 공연예술의 메카로.

'라이어'를 보기 위한 관객들



낙산 기슭에 깃든 삶 속으로 스며드는 예술

김준기 (미술비평가, 경희대 겸임교수)



서울의 문화공간

남기웅
현재 모아 엔터테인먼트 대표, 한국공연프로
듀서협회 이사, 서울연극협회사무국장, 한국
연극협회이사로 있다.
mammoa@naver.com

서울에는 낙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다. 이 산은 서울의 풍수지리를 형성하는 주요 줄기 가운데 하나로, 서울 도심지의 동쪽에 자리 잡았다. 서울의 주산(主山)인 북한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북악산에서 좌우로 퍼지는데, 경복궁 뒷산인 북악산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줄기가 인왕산이고, 왼쪽으로 뻗은 줄기가 낙산이다. 경복궁을 명당으로 성립하는 조건인 내명당수 청계천과 외명당수 한강, 그리고 앞산인 남산과 저 멀리 보이는 관악산과 더불어 경복궁 터를 안온하게 감싸며 명당자리의 기운을 지켜주는 좌청룡 우백호 가운데 좌청룡에 해당하는 것이 낙산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낙산이 어디 붙었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분에게 ‘대학로 뒷산’이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거기 그 자잘한 집들이 즐비한 그 언덕.” 맞는 말이다. 조선 초기에 4대문 이름을 지을 때 각각의 문 이름에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붙였는데, 낙산 아래의 동쪽 문에 낙산의 산세가 오죽 약했으면 흥할 흥(興) 자를 넣어 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는 문패를 달았겠는가.

이무리 야트막하다고는 하나 낙산은 엄연히 서울 성곽의 동쪽 축선이 이어지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워낙 평지의 도시공간과 인접해 있는데다 근대화과정에서 주거공간이 난립한 낙산은 그 상징적 가치를 상실한 채 초라한 모양새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슬럼가로 변모했다. 그러나 절반가량은 낙산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서울 도심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공원으로 자리 잡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문제이다. 일제시대의 적산 가옥으로부터 해방 이후의 집장사들이 지은 기형적인 집들, 최근에 지어진 번듯해 보이면서도 천박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20세기 한국의 민가 건축을 죄다 모아놓은 이 낙산 일대의 마을은 이제 새로운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낙산의 주택가는 메트로폴리스의 숙명인 도심공동화의 길을 피해가지 못했고, 결국 개발론자들의 프로젝트에 동의한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도 재개발 나름인지라 어떤 방식의 재개발인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들은 정보로는 낙산 끝자락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둔덕에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선다고 한다. 아파트들이 서울 도심 동쪽의 하늘을 틀어막으며 숨통을 죄일 것을 생각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낙산프로젝트’는 이렇듯 여러 모로 어려운 장소에서 시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대학로라는 서울 최대의 공영문화지구와 연결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발길과 무관하게 낙후한 주거공간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낙산 일대의 이화동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소외지역에서 미술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인시티 2006> 프로젝트는 2006년을 실질적인 ‘한국 공공미술 원년의 해’라고 부르게 할 만큼 커다



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공공미술이라는 영역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생활공간이나 시설물 등에 예술적 실친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다. 기획사업으로 꾸러진 ‘낙산프로젝트’는 미술평론가인 이태호 예술감독의 기획 아래 진행된 사업인데, ‘아트인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대학로와 낙산공원, 서울 성곽 사이에 위치한 이화동 일대가 그 대상이다. 대학로, 낙산공원, 서울성곽 등은 낙산이라는 단일한 지역 아래 서로 맞닿아 있지만, 서로 소통이 없는 섬처럼 존재하므로 이들을 연결하고 매개할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의 대안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다양한 작품을 설치한 이 프로젝트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미술 순례지로 자리 잡았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난개발의 집합체인지라 도시의 자연과 도로, 건축 등의 제반 요소들이 서로 난맥상을 이룬다. 그나마 대학로 일대는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빨간 벽돌집들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 문화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그나마 운치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낙산프로젝트는 이러한 장점을 안고 출발한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마로니에공원 앞을 지나면 문화예술위원회 정문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이 맞닿은 골목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낙산프로젝트 답사의 시작이다. 오른쪽 대학 담장에 이어진 만화이미지 벽화는 인근의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해 제작한 일종의 주민참여형 벽화이다. 담장이 꺾어질 무렵 녹슨 철판의 외장이 돋보이는 첫대 박물관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미술탐사가 시작된다. 박물관 왼편에는 노란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인 낙산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본부로 썼던 임시 사무실이다. 박스 위에서는 낚시를 하고 있는 조각 한 점이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다.

제일 처음 만나는 작품은 담장 위에 설치된 남녀 한 쌍이다. 좌우에서 서로 달려와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을 여러 컷의 스틸 컷으로 포착한 후 이것을 판재 조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가운데 있어야 할 조각이 누군가가 현장에서 없었던 점. 작품을 훼손한

어이없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지만, 작품이 없어진 빈 자리는 역설적으로 관람객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어지는 벽에는 벽화들로 가득하다. 부조 형식의 벽화에서 오브제 조각, 타일 벽화, 페인팅 벽화들까지 아이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특히 조인희 작가가 원단배달 벽화를 그리는 현장을 한 일간지의 사회부 기자가 공개하면서 벽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화동 일대에는 소규모 봉제업체들이 많다. 벽화는 동대문 일대의 의류상가와 직결된 이 일대의 봉제업을 상징하는 오토바이 뒤에 ‘돌돌말이’ 원단을 가득 싣고 다니는 장면을 그려냈다. 여기서도 안타까운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벽화 앞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긴 철제 펜스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해야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벽화 또한 고려해 설치했어야 했다. 마치 일부러 벽화 감상을 방해하려는 듯한 종로구청의 시각불감증에 대해 정중하게 아쉬움을 표한다.

이화동 동사무소 앞을 지나 언덕길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미화이발관이 눈에 띈다. 공공미술 작품은 아니지만 주인이 심혈을 기울여 직접 제작한 현란한 ‘썬팅’ 솜씨에 한동안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다. 빨강과 파랑의 태극문양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주민미술의 정수이다. 언덕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봉제인의 벽이 나타난다. 미싱대와 실타래 사이에서 젊은 청춘남녀가 정면을 응시한다. 미싱 일로 삶을 꾸려가는 그 술한 젊은이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청춘을 불사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떠올리게 한다. 컨테이너박스에 그려진 솜씨 좋은 자작나무 그림을 지나면, 또 하나의 명품을 만날 수 있다. 석축과 시멘트 벽 사이의 빼죽한 공간에 역삼각형의 벽 모양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 벽화가 나타난다. 차치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벽화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림의 묘미를 만끽하도록 해준다.

이화동 굴다리는 낙산프로젝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이다. 언덕의 각도가 워낙 가파른지라 떨어 모양으로 꼬아 올라간 굴다리가 있다. 다리 밑에 김아영이 그린 주민참여 벽화가 친숙하게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

그림의 결과물들을 선보인다. 높다란 석축에는 유리공예를 도입한 나뭇잎 모양의 조형물이 박혀 있고, 휘돌아가는 옹벽 한가운데 침팬지 두 마리가 앉아 있다. 조각가 설총식의 이 작품은 애초에는 방송통신대 담장 위에 놓여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마치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청해 그곳으로 옮겨놓았다. 현대인의 경쟁심리를 묘사한 이 작품이 지성의 전당으로부터 터부시 될 줄이야. 굴다리 옆의 후미진 공간을 메운 이영섭의 반추상 조각작품은 자투리땅의 모양에 딱 맞게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언젠가 이곳을 지나다보니 누군가가 백조 한 쌍을 배치했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매우 신경 써서 현장과 어울리게 설치한 흔적이 역력했다. 역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몫은 절대적이다.

굴다리를 돌아서면 성곽 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계단의 단면을 이용한 벽화가 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신문 지상에 가장 많이 소개된 작품이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의외의 풍경을 만나는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서울 성곽의 동쪽 라인을 만나는 것. 성곽을 따라 낙산 정상까지 걸다보면 서울 중심지와 그 바깥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작품보다 풍경이 좋다. 확실히 그렇다.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시대 건축물들을 따라 다시 원위치. 오래된 샘플을 복원한 자리 옆에 남루한 벽면을 만난다. 시멘트의 질감을 살려 까칠까칠하게 처리된 벽면이다. 그 위에 수목 풍경을 멋들어지게 그려낸 조종성의 벽화가 매력적이다. 그는 고전 풍경화 속에 나타나는 건축물을 압착부조 방식으로 만들어 벽화 위 장독대 위에 설치해 두었다. 고전을 재해석한 명작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기쁨 또한 크다. 그 아래 샘플을 복원한 현장은 수도요금을 아끼려는 의도에서인지 물이 흐르지 않고 수도꼭지가 잠겨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모처럼 차분히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낙산공원 인근에 들어서면 낙산프로젝트 답사의 막바지에 이른다. 태양 열에너지를 이용해 아령을 드는 로봇을 만든 주재환의 유머러스한 조각을 지나면, 완만한 곡선을 타고 낭떠러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신사와 강아지가 저 멀리 남산을 향하고 있다. 경복궁 쪽 서울 도심에 내려다보며 난간에 이어진 조각들을 감상하다보면 어느새 낙산공원 입구가 나온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가파른 길의 주택이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작은 담벼락에 그려진 평범한 꽃그림. 그것 하나가 얼마나 화사하게 그 거리를 바꾸어 놓았는지. 벽화 제작 이전과 이후를 직접 목격한 나는 안다. 꽃그림뿐만 아니라 선들의 연쇄로 이뤄진 기하학적인 추상작업도, 좋고 낯익고 언덕을 오르는 피곤한 일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낙타 그림도 좋다. 파출소의 참수리 문양을 해체해 재구성한 한젼마의 파출소 조형물 벽화와 기업은행 건물에 그려진 연극인의 벽, 그리고 아르코극장 무대로 통하는 출입구에 대형 시트지로 채운 정재호의 벽화로 이어지는 마지막 동선을 돌고나면 풍경과



미술이 한데 어우러진 낙산프로젝트 답사가 끝난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낙산 프로젝트의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조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숨어 있다. 낙산 답사 최후의 명작은 파출소 옆 골목 벽화이다. 좁은 벽에 그린 평범한 도시 주택이 풍경인데, 그 형태와 색채의 감각이 너무 매력적이라 한동안 사람의 발걸음과 묶어놓고 눈길을 잡아 끈다. 얇은 선묘로 형태를 잡고 그 내부의 면들을 감각적인 색면들로 처리한 것. 역시 미술은 '무엇을 그렸느냐'와 함께 '어떻게 그렸느냐'가 동시에 중요하다. 그것을 절감하는 경우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걸 늘 강조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형식미의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미술이다. 공공미술 하면 으레 공공성이나 장소성, 역사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의 내러티브가 얼마나 맥락화에 성공했는지를 주요 관건으로 꼽는다. 그러나 공공미술도 미술이어서, 때로는 빈약한 내러티브를 가진 작품일지라도 매력적인 표현방법을 구사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치거나 폄하할 일이 아니라 따뜻한 상찬의 눈길을 보낼 일이기 때문이다.

낙산프로젝트는 한국공공미술 원년의 이정표이다. 그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참여 작가의 수나 설치 작품

의 면면도 죄다 한국사회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대대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접근한 공공미술, 줄여서 '새로운 공공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낙산 기슭의 마을은 미술이 공공성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다수의 결과물들을 상설 전시하는 곳이다. 1980년대 이래 우리는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도시 곳곳의 조형물들을 부지기수로 만나왔다. 하나같이 주변의 환경이나 장소의 맥락, 주민들의 정서와 생각들을 담아내는 데 매우 인색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이기는 하나 공공장소의 맥락을 가진 진정한 공공미술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낙산프로젝트의 가치는 미술을 앞세우기보다는 공공성의 가치와 예술적 자율성을 상호공존의 장에서 만나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다는 데 있다. 대학로의 공연문화거리를 찾을 일이 있다면 그곳 번다한 거리를 살짝 벗어나 언덕길을 걸어 보기를 권한다. 낙산 산기슭에 깃든 새로운 공공미술의 향기를 따라 걸다보면 그곳에서 저 따뜻한 삶의 면면으로 스며들어가는 새로운 예술에 흠뻑 취할 수 있다.

김준기

2006 석남미술상 젊은이론가상 수상, 현재 경희대 겸임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자원예술매개 공간운영단장으로 있다.

공연

여름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공연장에서 만나는 공포 & 추리극

강렬한 햇살, 찌는 듯한 더위, 골목을 가득 메우는 매미 소리. 장마가 지나가고 진정한 여름 8월이 다가왔다. 피하지 못하면 즐거라고 했던가? 거리를 덮은 공포영화 포스터가 여름 피서를 손짓한다.

올해는 유독 끔찍한 장면과 핏빛 이미지가 어우러진 포스터가 많아, 시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다 하니 더위의 강도에 발맞춰 공포물 역시 증가하는 추세인 듯싶다. 특히 올여름에는 영화관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공포물과 추리극 같은 다양한 여름용 특별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열치열!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 있는 공연 한 편을 감상하며 더위를 이겨내 보는 건 어떨까.



심야공포연극 <죽이는 이야기>

2005년부터 시작한 '공포연극' 시리즈의 하나로 영상과 음향, 촉각과 후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구성으로 일상 속 네 가지 도시괴담을 엮었다.

2007. 6. 29~8. 31 | 화~일 22:30 | 7. 17 / 8. 15, 22:30 | 월요일 공연 없음 • 대학로 창조홀 • 일반 20,000 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 02-741-3934 • 만 15세 이상 관람 가능 • 제작 : (주)축제를만드는 사람들, 극단 여름사냥 • 연출 : 김재환 | 예술감독 : 박순기 | 작가 : 진영섭 | 출연 : 전소운 전형숙 마창훈 김민정 이정호 조은진

공포연극 <오래된 아이>

15년 전 사라졌던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 15년 동안 잊혀졌던 '여아 실종사건'을 둘러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한다.

2007. 7. 11~9. 1 | 월~금 22:30 | 토,공휴일 22:00 | 일요일 공연 없음



음 • 대학로 아트홀 스타시티소극장

• 일반 20,000원 | 청소년 12,000원 | 월요일 전석 10,000원 • 문의 : 02-741-6135/6235 • 만 15세 이상 관람 가능 • 주최 : 옆집누나, 주관: 기획 : 마루컴퍼니



코믹스터리 수사극

<조선형사 흥윤식>

1922년 경성에서 벌어졌던 '단두유 아사건'의 전모가 2007년 서울에서 밝혀진다. 예스러운 무대와 소품, 맛깔스런 연기가 어우러져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듯 흥미롭게 펼쳐진다. 2007. 7. 6~9. 2 | 화~목 20:00

| 금 16:00, 20:00 | 토,공휴일 15:00, 18:30 | 일 16:00 | 월요일 공연 없음 •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2관 • 전석 20,000원 • 문의 : 02-762-0010 • 만 13세 이상 • 제작 : (주)이다엔터테인먼트, 극단 드림플레이 • 연출 : 김재엽 | 극작 : 성기웅 | 출연 : 백은철 선명균 정원조 우둔기 이상혁 이갑선 이소영 외



<진짜, 하운드 경위>

두 평론가와 여배우의 죽음을 둘러싸고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경쾌한 추리극으로,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의 작가 톰 스토파드가 쓴 작품을 박광정이 연출을 맡아 재해석했다.

- 2007. 7. 5~8. 5 | 월~금 20:00 | 토,공휴일 16:00, 19:00 | 일 16:00 | 수요일 공연 없음 • 대학로 정보소극장 • 성인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의 : 02-743-7710 • 만 12세 이상 • 제작 : 극단 파크 • 연출 : 박광정 | 출연 : 유연수 최선영 조정환 한승도 김무신 남승혜 이윤화



코믹추리극 <쉬어매드니스>

무섭기만 한 것은 싫다! 재미있으면 서도 서늘한 긴장감이 있는 공연을 원한다면, <쉬어매드니스>를 추천한다. 미용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배우와 관객이 함께 풀어 가는 상황극 형식으로 개그맨 출신의 김기수, 이정수 등 순발력 있는 신예 배우들이 등장한다.

2006. 12. 2~2007. 9. 2 | 화~목 20:00 | 금 16:00, 20:00 | 토 16:00, 19:30 | 일,공휴일 15:00, 18:30 | 월요일 공연 없음 • 대학로 예술마당 • 일반 30,000원 | 대학생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 금요일 16:00 공연은 일괄 15,000원 | 7월 10일~8월 5일 공연(7월 1일부터 예매) 전석 10,000원 • 문의 : 02-501-7888 •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 제작 : MBC프로덕션, 뮤지컬해븐, EM미디어 • 연출 : 강봉훈 | 출연 : 김기수 김도형 나인규 박호영 이미선 이정수 이화룡 홍우진 외

여름방학 맞이 예술체험 프로그램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거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예술체험은 필수코스이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예술을 즐기는 방법! 공연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명사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수업>



극악, 재즈, 성악, 마임 등 최고의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도록 예술을 설명하고 공연한다. 2007. 8. 4(토)~19(일) • 토,일 14:00, 16:00 • 정동극장 • 만 6세 이상 관람 가능 • 4교시 패키지 40,000원(33% 할인), 전석 15,000원(1교시) • 문의 : 02-751-1500 • 재즈: 한충환 | 마임: 유진규 | 국악: 안숙선 | 성악: 정은숙

JK양상블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헨델, 모차르트, 바흐 등의 음악을 전문 연주자인 JK양상블이 알차게 연주하고, 여기에 김의명 교수의 친절한 해설이 더해졌다.

2007. 8. 1(수) 19:00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S석 15,000원, A석 12,000원, B석 10,000원 • (사)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02-785-6843 •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 • 주최: (사)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어린이 경제교육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어린 재크가 요술지갑을 얻게 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모험이야기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07. 7. 7~8. 25 | 평일 11:00(단체), 15:00 | 토,공휴일 12:00, 14:00 | 월,화 공연 없음 • 명동 우림퍼키하우스 • 재크석 20,000원, 사랑티켓 회원가 16,000원(어린이 가격 동일) | 7. 8 공연 10,000원 | 7. 12~29 공연 12,000원 • 문의 : 1588-1089 • 생후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엄마는 안 가르쳐줘>

엄마도 가르쳐 주지 않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성'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구성한 작품으로, 놀이와 뮤지컬 형식, 그리고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였다.

2007. 7. 28~8. 26 | 매일 11:00, 14:00 | 월요일 공연 없음 • 대학로 사다리아트센터 동그라미극장 • 전석 20,000원 • 문의 : 02-744-7304 • 만 4세 이상 관람 가능 • 제작 : 투비컴퍼니 • 연출 : 오유경 | 극작 : 김나영 | 작곡 : 이호근 | 출연 : 조판수 이선희 천용철 김형석 외

어린이 숲속놀이터 <체험놀이>

도시 속에서 즐기는 감성체험 놀이로 바람놀이터, 숲속극장, 흙놀이터, 물놀이터의 네 가지 테마방에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해 창의력을 기르는 공연으로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 2006. 1. 1~2007. 8. 26 | 10:00~17:30 | 30분 간격 입장 | 월요일 휴관

• 남산 N서울타워 지하 1층 • 20,000원 • 02-3455-9271, 02-516-1501, www.ibatu.net • 생후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 • 주최 : (주)루트원, CJ엔터테인먼트

싸고 알차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 -

사랑티켓(www.sati.or.kr)

사랑티켓은 공연예술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랑티켓 웹사이트나 대학로 티켓박스에서 사랑티켓 지원금(공연티켓 5,000원 | 전시티켓 1,000원)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한 달에 4매까지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2007 춤으로 클릭하는 동화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떠나는 춤의 세계로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7. 8. 23

(목) ~ 25(토) 목: 오후5시 / 금: 오후2시, 5시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기획/제작: 공연기획MCT 춤으로 만나는 동화 시리즈!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을 한 자리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춤 프로젝트,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춤으로 클릭하는 동화」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해마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어린이 관객들과 만났다.

여름방학, '가족'이 함께하는 전시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 손잡고 미술관으로 시원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어린이부터 성인 등 모든 가족이 함께 그리고 즐겁게 관람하고, 작품과 공간대까지 형성할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미술관은 너무 멀다" "전시는 너무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림과 친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 미술도 나와 친해질 수 있죠. 여러 번 자주 보다 보면 어떤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고 자주 질문합니다. 대답은 "작품을 봤을 때 필(feel)이 꽃히고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남는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고가(高價), 대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순 없죠"가 아닐까요?

자, 그럼 전시 보러간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가족나들이 한번 떠나보죠.

〈2007미술관 놀이 퍼스너츠展〉



2007년 7월 13일~8월 26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8시(7월 30일(월) 휴관) • 입장료 : 일반(대학생) 5,000원, 만 4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3,000원, 단체(20인 이상) 1,000원 할인

〈전시 개요〉 〈퍼스너츠展〉은 관람객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대안으로 일반인에게 친숙한 '놀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 전시는 우리가 현대미술에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없애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관람객을 다채로운 상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작가들은 관람객들을 단지 '작품을 감상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는 능동적인 작가'가 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작업에 참여시킨다. 이로써 관람객은 '미술관의 중심'이 되며, '전시의 주인공'이 된다. • 부대행사 : 체험프로그램 '우혜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캐릭

터 모빌' (7. 15~8. 20 / 초등학교 생 1~6학년) • 전시 문의 : 02-580-1275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알록달록 빛깔체험展〉



2007년 5월 5일~8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별관 •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7시(월요일 휴관) • 입장료 : 20,000원(단체 20인 이상 20% 할인) • 전시개요 어린이에게는 오감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고, 가족에게는 다양한 발견과 재미있는 오감놀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평범한 빛깔과 소리가 어린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놀라게 변신하고 새롭게 재탄생한다. 〈알록달록 빛깔 체험展〉에서는 빛과 색, 소리에 대한 오감을 새롭게 열어 주고, 생활 속에서 각각의 놀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의 나라' '알록달록 색의 나라' '공타공 소리 나라'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해

진행된다. '반짝반짝 빛의 나라' : 빛의 다양한 효과 중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의 세상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발견하도록 재구성했다. 빛스펙트럼, 형광색놀이, 무지개놀이, 반사거울 서바이벌 등을 통해 밝고 어두운, 빛과 그림자, 현실의 꿈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알록달록 색의 나라' : 알록달록 단어놀이, 색혼합놀이, 레고를 이용한 컬러월드, 색팽이 만들기 같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기본색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직접 색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타공 소리의 나라' : 사물과 현상이 지닌 원음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보면서 그 차이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 효과음 실험, 난타 체험, 숲속 동물 놀이 등을 통해 상상하고 나만의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체험 프로세스 :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들에게 오감체험의 기회제공 → 원리에 기초를 이해하는 과학체험 → 체험하고, 계획하고, 만들어 보는 디자인워크숍 • 전시 문의 : 02-399-1152

〈미술과 수학의 교감Ⅱ展〉

2007년 7월 11일~9월 2일, 사비미술관 •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7



시(월요일 휴관 • 입장료 : 2,000원, 5~19세 1,000원, 65세 이상 무료 입장) • 전시개요 2005년 전시에서 이은 후속전시. 이전 전시에서는 한국현대미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일반요소들(숫자, 도형, 원리)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올해 전시에서는 수학적 원리들에 포커스를 맞춰 분석해보도록 했다. 한국현대미술 작품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수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평면과 입체의 관계, 반복과 확장, 집적 등으로 나눠 구성했다. • 부대행사 : 교육프로그램 '재미있는 수학그리기'(7. 14~9. 2): 전시관람 후 미술 속 수학 원리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 전시 문의 : 02-736-4371

지금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역사는 재미있다. 옛날이야기들이 가지는 모든 재미를 역사는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미만 있을 뿐이라면 역사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되새김질되지 않았을 터. 이토록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을 터이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끼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여기 있다. 그러나 왜 갑자기 역사를 주제로 한 책들이 이달 들어 한꺼번에 서점을 장악했는지, 단순히 역사를 되새기는 것뿐 아니라 요리 뜯어보고 조리 뜯어보는 책들이 다양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 권씩 한 권씩 읽어 나가다보면 알게 될까?

〈아틀라스 중국사 - Historical Atlas Series 03〉



김병준, 김형중, 박한제, 이근명, 이준갑 지음 | 사계절 출판사 〈아틀라스 한국사〉 〈아틀라스 세계사〉에 이어 〈아틀라스 중국사〉가 나왔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출신의 저자 다섯 명이 지도를 펼쳐 중국사를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신석기 문명이 생겨났을 때부터 근현대의 개혁, 개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사의 모든 것을 155개의 도판자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한다. 중국사에 관심이 있는 이에게 쏙쏙 들어오는 개설서가 될 듯싶다.

〈꽃아 꽃아 문 열러라 - 이윤기 우리 신화 에세이〉



이윤기 지음 | 열린원역사 이전에 신화가 있다. 작가이자 번역가 이신화 마니아이기도 한 이윤기가 우리 신화를 돌아보았다. 단군과 용녀부터 시작해 주몽과 유리태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등 역사와

신화 사이의 경계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요리조리 잘 뜯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리스로마신화만 신화인가? 우리의 신화가 지닌 짝조름한 재미를 이 책으로 맛볼 만하다.

〈천마디를 이긴 한마디 |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s〉



헬게 헤세 지음, 박종대 옮김 | 북스코프(아카넷) 역사 속에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말이 있다. 사건뿐 아니라 정국을 꼭 찌르는 말은 여전히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된다.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에 말해진 명언 70가지를 소개한 이 책은, 말을 통해 역사를 돌아본다. 각각의 말들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배경은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이에 대한 설명과 평가는 역사를 다시 들여보는 색다른 시선이다. 왜 에피쿠로스학파는 "현재를 즐겨라"라고 했을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유명한 말은 누가 누구를 향해 쓴 사실일까? 역사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아무데나 펼쳐 읽어도 되는 재미를 즐겨 보자.

〈칭기즈칸 전 5권〉



요코야마 미쓰테루 지음, 이길진 옮김 | 에이케이(AK) 〈철인 28호〉 〈요술공주 세리〉의 작가 칭기즈칸의 일대기를 만화로 옮겼다. 알렉산더, 나폴레옹과 함께 세계 3대 정복자로 꼽히는 칭기즈칸의 담대한 삶이 자유롭게 펼쳐진다. 세계를 정복한 칭기즈칸이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를 그때의 시대상과 함께 생생하게 그려냈다. 위인전의 재미에 만화의 재미가 덧붙여져 두 배의 재미를 이룬다.

〈이산 정조대왕 - 조선의 이노베이터〉



이상각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18세기 조선 을 이끌었던 정조대왕. 조선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드라마틱하게 살다 간 왕. 정조의 화성행차부터 시작해 왕위 등극과 삼대모역사건, 제도 개혁과정, 정조를 둘러싼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요묘조묘 뜯어보았다.

〈사기史記의 인간경영법〉



김영수 지음 | 김영사 역사 속에 현재의 교훈이 있다. 20년 동안 〈사기〉만을 연구해 온 한국의 〈사기〉전문가 김영수 교수가 〈사기〉 속에 담긴 인재경영술, 처세술, 화술, 심리술 등의 요령을 쏙쏙 뽑아냈다. 주공에게서 "인재를 얻고 싶으면 하루 100명과 면담"하는 인간경영법을 배우고, 수문제에게서 "참모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위임형 인간경영법을 배우자.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인간관계의 지혜를 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전 10권



박시백 지음 | 휴머니스트 〈한겨레〉에서 만평을 그렸던 저자가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엮었다. 총 20권 분량 중 현재 10권이 먼저 나왔지만, 각 권이 독립된 구조라 반드시 이어서 볼 필요는 없다. 각 권마다 말미에는 그 권에 실린 내용과 연계된 상세한 연표가 실려 있다. 원본 기록에 충실하려 노력했으나 현대적 해석도 포기하지 않은 작품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손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듯싶다.

문화는 내 친구



매월 4번째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문화는 내 친구>는 올 10월까지 계속된다. 8월 26일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각 코스별로 30명 안팎의 정원을 선발하며, 당첨자는 15일경 공지 후 개별 통보한다.

※ 문의전화: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팀 02-3290-7044

7월 22일 진행된 <문화는 내 친구> 투어는 총 10개 코스로 진행됐다. 미술유적 투어에서는 부암동 환기미술관을 찾아가 20세기가 낳은 절정의

화가, 동서융합의 완성을 보여준 김환기의 작품을 감상했다. 도보이동으로 진행된 문화유산 투어에서는 삼청동 일대를 거닐며 '산자수명(山紫水明) 서울'을 느껴보았다. 로버트 켈러의 영어 동시진행은 시민들에게 다중문화사회의 또 다른 공간을 보여주었다. 건축가협회와 함께 진행된 건축투어에서는 근대건축의 현주소인 장충동 일대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삼성미술관 리움을 관람했다. 또한 <문화는 내 친구>는 시민들에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접할 기회를 가졌다. 7월 투어에는 연세대 박물관과 상명대 박물관이 투어에 참여했으며, 그밖에 자녀들을 위한 생명과학체험박물관, 여성들을 위한 보나장신구박물관과 목인박물관 등이 참여해 주었다. 앞으로 <문화는 내 친구>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주제와 깊이 있는 설명으로 서울 곳곳에 자리 잡은 문화 명소들을 찾아 문화를 가꾸며 나눌 예정이다.

8월 26일 <문화는 내 친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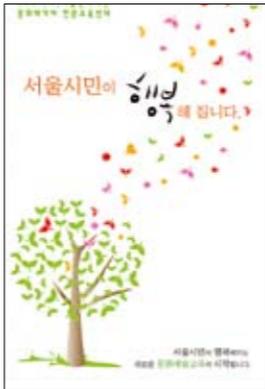
프로그램	주제 및 장소
아름리에 투어	서정태(한국화), 임옥상(서양화) 아름리에 탐방
미술유적 투어	'아트인컬처'에 이메일 접수 1999art@naver.com 조선시대 최대의 미술시장의 흔적을 찾아서 청계천 광통교, 서화미술원터 (진행: 미술평론가 최열, 정준모) 투어 후 슬라이드 강의
문화유산 투어	새로운 건축 모색 동대문-남산 (진행: 건축가 조인숙, 《Seoul》편집장 로버트 켈러) 영어 동시진행, 도보이동
건축문화 투어	코스 1. 덕원갤러리-토포하우스-섬지길-공간건축 코스 2. 서울대학교 '한국건축가협회'에 이메일 접수(jeongye@hotmail.com)
박물관 투어	코스 1. 동아일보 신문박물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물관 코스 2. 세계장신구박물관, 상명대 박물관 코스 3. 서강대 박물관, 평강성서유물박물관 입장료 개별 부담(50% 단체 할인 적용)
전시 투어	코스 1. 통의동·사간동의 작은 갤러리 투어 코스 2. 사진 전문 갤러리 투어

문화는 내 친구 싸이월드 타운



<문화는 내 친구>는 싸이월드와 제휴해 타운을 운영한다. 타운 내에서는 투어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자와 홍보대사들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도 볼 수 있다. 또한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도서 연극 티켓, 싸이월드 도토리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문화는 내 친구> 타운은 인기·교류·열정 지수의 상승분에 가중치를 고려한 총합을 기준으로 문화 카테고리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매개자 전문교육센터 "서울시민이 행복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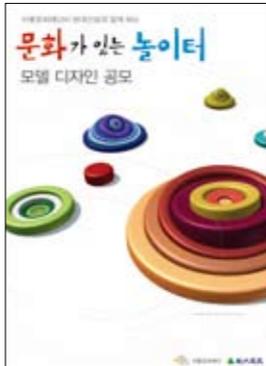


'문화매개자 전문교육센터'는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그 첫 단추로 현재 전문매개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별화된 방향의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8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 튜터 양성전문교육과정 입문과정 I'에서는 한 명의 예술가가 문화예술교육가로 성장하기 위해 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서는 마음교육과 자기이해가 우선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또한 장르를 뛰어넘는 교육을 지향하며 성공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하는 강의도 마련됐다. 8월에는 장르별 그룹별로 전문 튜터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자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서 좀 더 실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 모델 디자인 공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놀이터 디자인 공모'가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8월 22일(수)까지 작품을 직접 접수해야 한다. 디자인, 조경, 건축 및 시각예술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관련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팀 02-3290-7043

대학동아리 한강음악페스티벌

대학생 동아리팀이 한강에서 펼치는 음악페스티벌. 축제에 참여해 무대에 서 공연해 보자. 동아리활동을 위한 지원금도 지원해 준다.



일시 : 2007. 8. 11/25(매월 2, 4째 주 토요일) 17:00~19:00 • 장소 : 한강시민공원 독섬지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2007 책 읽는 서울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ONE BOOK ONE CITY'를 벤치마킹한 독서캠페인 사업이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미국의 시애틀, 또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한 서산, 순천, 부산에 비해 서울특별시는 훨씬 거대하고 다양성이 혼재한 도시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특별시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역별 도서관을 거점으로 삼아 사업을 준비해왔다.

2004년 9월 '책 읽는 서울' 개막식과 함께 31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의 목표 아래 16개 도서관

이 참여했으며, 2006년에는 26개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해 활발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7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는 서



울시내 57개 공공도서관이 대거 참여하는 명실 공히 서울을 대표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참해 한창 활기를 띠우고 있다. 2007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이 단순히 독서운동을 위한 거점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꾀하는 진정한 커뮤니티센터로서 거듭나는 데 작은 불씨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07년에 참여하는 57개의 도서관 중 23개 도서관은 9종의 도서를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연계 진행을 하고 있으며, 11개 도서관은 5종의 동일도서를 가지고 원거리 지역 간 도서관 교류의 물꼬를 트는 아름다운 계기를 마련한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속에 서울광장에

서 평일 낮 12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해 온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가 더 큰 행복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최하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7월부터 저녁 8시로 옮겨져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여름 밤의 무드위를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문화피서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사후지원사업

창작 연극·뮤지컬 지원신청 안내

서울문화재단은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속공연이 가능한 국내 우수 창작 공연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후지원사업'은 기존의 서류심사에 의한 사전지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연된 작품을 지원대상으로 함으로써 좀 더 검증된 작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현장심사를 바탕으로 잠재력이 있는 작품을 선정해 작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품성과 완성도가 검증된 공연예술 작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 공연예술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지원 대상 : 창작 연극·뮤지컬의 공연/재공연 사업(재공연은 2008년 11월까지 완료)
- 신청 요건
 - 서울에서 공연하는 창작 연극으로 2007년 12월 2일까지 공연되는 작품
 - 초연 또는 초연된 지 2년 이내의 공연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품
 - 순수 창작 및 번안 공연(단순 번역 및 단순 각색은 불가)
- 선정 방향
 -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레퍼토리화 가능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

- 품 지원
- 창작·초연일 경우 가산점 부여
- 예술성, 독창성 및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가진 작품 지원
- 선정 작품의 지원 규모는 심사위원회의에서 해당 작품의 소요예산,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
- 심사절차
 - 심사기간 : 2007년 4~12월
 - 하반기 서류심사 : 2007년 8월
 - 2차 현장심사 : 2007년 9~11월
- 심사위원이 현장심사 대상 작품을 직접 보고 심사 진행
- 3차 종합심사 : 2007년 12월 중
- 현장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 해 최종 선정 작품과 지원 금액 결정
- 결과발표 : 2007년 12월 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류 접수기간 : 2007년 8월 1일(수) ~ 10일(금) 오후 2시
 - ※ 8월 31일 기준으로 상반기 공연은 이미 접수를 마감했으며, 이후 공연(9~11월)작만 하반기 심사에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우편)
 -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공지사항 545번 참조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67 (재)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팀 [130-823]
- 문의처 :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팀 (02-3290-7110-5)



당신이 문화의 시작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움직이는 대학생 홍보대사 1기 김정연



나와 서울문화재단의 인연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 재단의 움직이는 대학생 홍보대사가 된 후, 나는 신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체험한다.

서울문화재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재단의 역사가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책, 영화만을 문화라고 접해 왔던 사람이라면, 단연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법도 하다. 문화를 소극적과 적극적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했을 때, 서울문화재단은 적극적 형태의 문화사업을 벌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연인과의 데이트에서 또는 친구와의 만남에서 반복된 패턴에 투덜댄 적이 있거나, 문화생활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영화, 연극, 책, 음악 말고는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아 잠시라도 멍칠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적극적 형태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벌이는 사업은 10여 가지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문화는 내 친구>라는 프로그램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건축, 문학, 아틀리에, 전시, 박물관, 문화유적처럼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서울 곳곳으로 투어를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홍보대사 활동의 첫 시작으로 <문화는 내 친구>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그 현장을 취재하고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다. 투어를 떠나기 전, 사실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

에 대한 설렘만큼이나 걱정도 앞섰다.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결론 났지만,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것은 '서울사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었다. 어쩌면 차별 없는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재단의 홍보대사로서 반성해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문화를 즐기는 서울사람'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이전에는 먼저 또각 거리는 하이힐을 신고 브랜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선 유명 화가의 명품 작품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그려졌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온 꼬마 아이에서부터 꼭 붙잡은 두 손을 투어 내내 놓지 않던 40대 부부, 그리고 손주의 것으로 보이는 책가방을 메고 혼자 오셨던 뽀글머리 할머니까지... 예상외의 참가자들의 모습에 문득 집에 계신 엄마가 떠올랐다.

<문화는 내 친구> 행사가 있는 날이면 나는 소풍을 가는 기분이 든다. 사실은 소풍보다 더 설렌다. 편하게 버스로 움직이고 전문가의 해설이 함께하니 소풍으로는 웬지 부족한 듯싶다. 소풍보다 더 좋은 날, 이날을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은 참가자들 간의 소통이다. 새롭게 접하는 신선하고 적극적인 문화체험, 지루했던 일요일 오후를 알차게 채우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기에 낯선 이들 사이의 소통도 가능하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모습처럼 시간이 갈수록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 같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을 다음 달에 정말로 만났을 때, 이번엔 혼자가 아닌 손주를 데리고 나오신 할머니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는 소통의 즐거움을 체험한다.

평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정말 문화에도 계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문화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문화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전시장'이라고 했을 때 내가 뽀글머리 할머니 대신 또각구두에 브랜드 커피를 떠올렸던 것은 혹 내가 이 사회에서 학습해온 문화계급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례는 아닐까? 그래서 나는 <문화는 내 친구>가 마음에 든다. 전시장 투어를 떠났을 때 뽀글머리 할머니를 만날 수 있고 엄마의 손을 잡은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전시장 투어에서 만난 한 주부는 서울에 이렇게 많은 전시장이 있는 줄 그동안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프로

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며 힘없는 내게 부탁까지 하셨다. 사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도 서울시와 재단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죽 자라오면서도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서울의 보물들을 재단의 갖가지 사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매달 차별 없는 문화예술 현장을 경험하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니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을 누리는 나는 참 행복한 홍보대사다.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느껴보라고. 나이,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위해서는 당신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는 더 이상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 즐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세련된 것만도 아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당신이 바로 문화의 시작이다.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_____
 이름 (남·여) 생년월일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문화 + 서울

1 3 0 - 8 2 3



독 자 의 견 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책자 (〈예술현장매뉴얼〉시리즈, 〈예술총서〉등) 1권을 보내드립니다.